

천연융복합 소재 트렌드 및 마켓정보



ECO융합섬유연구원
2018. 10.



ECO융합섬유연구원
Korea Institute of Convergence Textile



천연융복합 소재 트렌드 및 마켓정보



※ 본 자료는 2018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패션활성화사업 중“의류생활용 섬유기획 및 개발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자료입니다.
※ 본 자료의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 자료제공 : ECO융합섬유연구원 ※ 문의 : 기업지원본부(063-830-3535)

목 차

| | | |
|----|------------------------|-----------------------------|
| 01 | I. 2018 천연 융복합 패션 마켓분석 | |
| 03 | 1. 소비자 및 산업적 이슈 | 1.1 이슈 키워드 |
| 08 | | 1.2 소비자 주요 트렌드 |
| 21 | | 1.3 산업의 주요 트렌드 |
| 26 | 2. 천연 융복합 패션소재 마켓 분석 | 2.1. 패션마켓과 천연 융복합 소재 |
| 50 | | 2.2. 아웃도어·스포츠 마켓과 천연 융복합 소재 |
| 56 | II. 천연 융복합 소재 트렌드 | |
| 58 | 1. 19·20 천연 융복합 소재트렌드 | 1.1. 2019·20 소재기획 주요 아이디어 |
| 60 | | 1.2. 2019·20 천연 융복합 소재 트렌드 |

ECO융합섬유연구원



ECO융합섬유연구원

I 2018 천연융복합 패션 마켓분석



ECO융합섬유연구원

1. 소비자 및 산업적 이슈

- 1.1 이슈 키워드
- 1.2 소비자 주요 트렌드
- 1.3 사업의 주요 트렌드

2. 천연 융복합 패션소재 마켓분석

- 2.1. 패션마켓과 천연 융복합 소재
- 2.2. 아웃도어·스포츠 마켓과
천연 융복합 소재

1 소비자 및 산업적 이슈

1.1 이슈 키워드

21세기에서 세 번째로 맞이하는 10년 동안 소비자 환경에 내재된 변화의 동인을 규정하는 것은 사업 계획과 생존의 모든 측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남보다 앞서 미리 사고하는 것이야말로 창의적인 리더들이 다가올 미래에 성공을 거두기 위해 어떻게 혁신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본 보고서를 통해 2020년에 소비자 환경을 개편할 세 가지 글로벌 동향을 파악해 소개한다.

- 다가오는 2020년대에 과거 비주류였던 여러 인종, 민족, 종교적 배경을 지닌 소비자층이 주류로 떠오르면서 새로운 급변점을 맞이할 것이다.
- 모바일 분야에서 5G의 파워에 힘입어 모바일 커머스가 대세를 차지할 것이다. 이에 따라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이 대중화되고, 더 나아가 소비자의 참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점점 더 많은 소비자들이 지역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행동을 실천함에 따라 클라우드 자본주의는 주목해야 할 힘으로 부상할 것이다.

■ 소비자에게 의미하는 바

- 현실 속 문제 해결에 국가와 정부를 신뢰하거나 힘이 없다고 느끼는 요즘, 지역 우선 순위가 바뀌고 있다. 지역별 가상화폐의 성장에서부터 행동으로 보여주는 기업의 장기적인 지역 사회 운동을 비롯한 기업 가치 함양에 이르기까지 2020년에는 상업적 성장이 지역 사회에 대한 헌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 사람들은 첨단기술 기업이 특히 인공 지능과 관련해 보다 윤리적이고 책임감있게 행동하기를 기대한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2020년이 하이브리드 인텔리전스(HI)와 인공지능(AI)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 불안은 임계점에 이르렀고, 사람들은 선택적인 무관심에 의지해 불안에 대처할 것이다. 또한, 포토샵으로 보정한 사진에 라벨로 표시하도록 한 프랑스 법을 포함해 완벽에 대한 개념이 도전 받으면서, 냉담한 하위 문화와 행동이 등장할 것이다

■ 기업에게 의미하는 바

- 새로운 소수 민족, 인종 및 종교적 배경을 가진 소비층이 주류로 떠오르면서 보다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지만, 브랜드들은 이것이 소비자의 가치와 생활 방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현 시장 점유에 도전할 새롭고 파격적인 기업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소매업체, 브랜드 및 서비스 제공업체는 멀티 플랫폼 (모바일, 데스크톱) 및 디스플레이 (스마트 안경, VR 스크린)에 발맞춰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재설계해야 한다.
- 기업은 지역 차원의 경제적 가치 사슬에 자사의 '가치'를 접목해야 하고, 이는 다가오는 2020년의 성장과 침체를 판가름할 것이다. 점점 더 많은 소비자들이 그들이 속한 지역 사회 내에서 지속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긍정적인 행동을 실천하는 기업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1) 새로운 소비자 목소리

인종과 민족을 구분하는 기준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힘 있는 소비자의 목소리 역시 변화한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구매력을 행사하면서, 이들과의 소통은 차선이 아닌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Generation M의 저자인 셸리나 잔모하메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무슬림 밀레니엄 세대들이 '경제력을 이용해 문화의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 2050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 즉 28억 명을 차지할 이들의 구매력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

2016년 글로벌 이슬람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무슬림 소비자는 2019년 10월까지의 류에 3,270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현재 영국 (1,070억 달러), 독일 (990억 달러), 인도(960억 달러) 의류 시장을 모두 합친 액수보다 큰 규모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슬람 소비자의 여행비 지출은 2026년까지 3,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전 세계 뷰티 소비액은 2021년까지 2,130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무슬림 밀레니엄 세대를 겨냥한 뷰티, 모디스트 패션, 서비스업에 투자하는 기업은 시장 점유를 확보할 것이다.

미국의 정체성이 바뀌고 있다. 2020년까지 18세 미만의 미국인 중 절반 이상이 소수 민족이고, 백인의 경우 노령화되는 인구가 출생 인구를 넘어설 것이다. 그렇다면, 인구의 판도가 바뀌게 되는 걸까? 전망에 따르면, 2040년까지 백인은 미국에서 소수계가 될 것이다.

유럽 또한 인종적으로 또는 민족적으로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 잉글랜드, 웨일스, 프랑스에서는 인종 간 결혼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이탈리아 통계청에 따르면 이탈리아 내 다인종 결혼은 2001년 이래 172%나 증가했다.

기업들은 이 같은 추세에 발맞춰,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이벤트를 개발하고 이를 판매

해야 한다. 미국에서 킨세네라 (Quincea era, 히스패닉계 소녀들의 15세 성인식 파티)는 의류, 식음료, 그리고 인플루언서 산업을 위한 미개척 시장이다. 그 외 또 다른 잠재 기회로는 이슬람 축제인 이드와 라마단을 들 수 있다.

셀리나 잔모하메드는 서구 소매업체 대다수는 '이슬람 소비자가 생소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시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라고 전한다.



(2) 모바일 커머스 시대

이커머스의 시대는 갔다. 2017년 UPS 온라인 구매자 동향 (UPS Pulse of the Online Shopper) 조사에 따르면, 2020년까지 모바일 커머스가 온라인 구매의 절반을 차지하며, 전 세계적으로 2,500달러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이커머스에서 모바일 커머스로의 진화는 모바일 앱과 고성능 스마트폰의 등장, 전 세계적인 5G 네트워크 경쟁에 힘입은 연결 속도에 달려 있다.

5G가 이처럼 화제를 모으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새로운 네트워크는 초고속, 초안정성, 성능을 바탕으로 증강 현실, 연결된 차량, 사물인터넷을 비롯한 업계 전반에 걸친 대규모 채택 속도를 늘릴 것이다. 가트너가 2020년까지 204억 대의 연결된 기기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는 가운데, 5G 통신망의 구축은 시급하다. 아시아와 미국은 2018년에 5G 네트워크를 보급하기 시작할 예정이며 2019년에는 유럽과 중남미에서 그 뒤를 이을 것이다.

빠른 연결성은 곧 성공을 의미한다. 쿨콤에서 실시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5G 무선통신 기술은 2020년과 2035년 사이에 3조달러에 달하는 전 세계 경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다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속도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에피서버의 2017 디지털 커머스 상황 보고서에서는 전 세계 응답자 중 37%가 속도와 편의를 '핵심 구매 요인'으로 손꼽았으며, 40% 이상은 로딩 시간이 느린 웹사이트는 기다리지 않고 즉시 나간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 중 27%가 속도가 빠르다면, 경쟁사 서비스로 옮길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원클릭 주문이 가능한 고속 로딩을 제공하는 것이 관건이다.

전반적으로 최적화된 결제 솔루션이 가장 중요하다. 모바일 지갑에 투자하는 기업은 Z세대 시장의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으며, 수년 동안 말로만 들어온 현금 없는 세상에 접어들 것이다.

브랜드 앱에 투자하는 기업에게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경험이 배제된 앱은 홈 화면 위에 있는 의미 없는 로고로 전략해 곧 삭제될 것이다. 앱은 이제 단순한 장바구니의 역할을 넘어, 목적을 찾아야 할 것이다.



(3) 클라우드 자본주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공유 경제는 실생활에 뿌리를 내리고 계속해서 경제에 변혁을 일으키고 있다. 202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3,3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P2P 시장은 전통적인 기업 중심의 경제 모델에 더욱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는 클라우드 자본주의 시대를 맞이할 때이다. 이는 정부 규제, 도시 기획, 노동의 미래 및 지역 성장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새로운 경제 모델이다.

경제가 불안한 국가에서는 공유 경제가 꾸준한 소득의 원천이 되고 있다.

중남미에서는 공유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2015년 이후 200%의 연간 성장률을 보인 후 브라질에 사무소를 개설했다. 리우데자네이루는 에어비앤비 이용지로서 이제 파리와 뉴욕 다음으로 3위를 차지한다. 우버는 2015년 이래로 멕시코 시티에만 10,000명이 넘는 밀레니엄 세대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왔다.

다른 한편으로는 클라우드 자본주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인도의 공유 경제는 매년 인력 시장에 진출하는 인도인 1,300만 명 중 일부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아프리카와 동유럽 일부 지역에서도 유사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일자리 창출, 가처분 소득, 지역 경제 활성화 등 환경 요인을 포함해 클라우드 자본주의에는 장점이 있지만, 지나치게 빠른 증가와 적응, 즉 숙련된 정규 노동자의 임금 변동, 공유 경제 기업의 비윤리적 행동과 기업이 각 경제, 즉 임시직 경제 속에서 장기 고용의 어려움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 경제에 다가가고 있다. 우버와 에어비앤비를 금지하는 국가와 도시가 있는가 하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젊은이들이 타지로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유 경제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다.

공유 경제는 2020년 기업에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기업은 유연한 근무시간, 모바일 사무실 등 직장 내 새로운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주문형 파트너십, 제 3사 배급을 포함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1.2 소비자 주요 트렌드

(1) 아날로그 액티비즘

특정 질병에 대한 인식 강화 및 기금 모금을 위해 아이스 버킷 챌린지에 동참하든, 특정 정당을 지원하기 위해 링크를 공유하든 간에 사회의 관심을 모으는데 사용되는 매체들은 이따금씩 그릇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처럼 잘못된 보안은 2016년 이후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다.

불안감을 신념과 가치를 위한 투쟁으로 변모시키는 사람들이 이끄는 액티비즘의 시대가 우리 곁에 다가왔으며, 2020년까지 각 지역의 로컬 액티비즘이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밀레니엄 세대를 포함한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지방 선거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정치 분석가 데릭 톰슨은 "가장 중요한 정책 결정은 지방 및 주 차원에서 흔히 이루어집니다. 밀레니엄 세대는 단순히 한 표를 찍기위해 투표장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시장 선거에 참여하는 평균 유권자 연령은 60세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재선 이전에 태어난 고령 유권자들만이 시장 선거에 참여한다면, 최저 임금 인상과 같은 중요한 지방 정책에 대해 전국적인 운동을 일으키지 못할 겁니다."라고 전한다. 이는 단지 미국만의 추세가 아니다.

IPSOS의 자료에 따르면 "1992년에서 2005년 사이 영국 총선에 참여한 청년 투표율은 28% 감소했으며, 그 이후로 40%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지방 선거 및 유럽연합 선거에서는 영국의 청년 투표율이 이보다 낮은 20% 이하를 기록해, 유럽연합 최장국 15개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2016년 이후 시민의 무관심은 기록적인 시민 참여로 변화했다.한 때 냉소적인 방관자였던 수백만의 시민이 진지하게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당연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라고 Indivisible Illinois의 리더인 로빈 두섹(43세)은 전한다. "저 자신의 참여 없이 진보가 계속될 것이라고 장담하지 못하니까요."

영국에서는 브렉시트 이래 백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 등록을 마쳤다. 미국에서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와 여성 유권자 연맹의 회원 가입이 급증했다. 양국 모두대규모 행진, 시위 및 지역 시민 회의 참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제 사회 운동은 온라인에서 벗어나 거리로 이동하고 있으며, 아날로그 방식을 추구한다.

라티노 바로메트로의 전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브라질인들은 부패와 공유 가치의 부재로 인해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잃고 있으며, 2016년에는 신뢰도가 54%에서 32%로 하락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칼럼니스트 에드워드 루스는 "민주주의는 가치에 의해 형성된다고 배웠지만, 브라질에서는 종교 단체와 정치단체 사이에서 가치가 변화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같은 분열은 예술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예술 전시회와 극장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문화 전쟁의 주요장소로 떠올랐다.

시위대는 방문객들로 하여금 누드 남성을 만지게 한 상파울루 현대 미술관의 전시회를 비난했다. 한 은행 지원 문화 센터는 성적 다양성을 탐구하는 Queermuseum 전시회를 취소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검열이라고 판결내렸다. 예수를 트랜스젠더 여성으로 묘사한 연극의 경우 시위대가 무대 위로 돌진하기도 했다.

이같은 문화 전쟁이 독특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소셜미디어 십자군이 아니다. 양측 모두 지역 집회에 동원되어 집회를 지원하고 더 많은 시위자를 모집한다.

시위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다세대 투표율이야말로 차별화 요소다. 서울의 여러 시위에서부터 시드니에서 열린 호주의 날 시위까지, 알파세대에서 베이비 부머 세대까지 모두 사회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시위는 나이와 상관 없이 공통된 신념과 정책 변화에 대한 요구를 부르짖는 행위입니다. 뉴욕에서 열린 여성 행진에서는 유모차를 탄 아이는 물론 휠체어에 앉은 노인

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한 가지 공통점은 바로 분노와 행동 촉구였습니다."라고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 연구소의 수석 자문위원인 잭슨 유잉은 말한다.

더 많은 세대가 나란히 공존하면서, 지역 시민 참여는 지역 사회 내 연령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 잭슨 유잉은 "모든 사람이 온라인 참여를 통해 동일한 결과를 얻지는 않더라도, 이웃들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 사회 내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라고 전한다.



(2) 지속가능성과 지역사회 운동

새로운 유형의 지역사회 운동가들이 떠오르고 있다. 이들은 지역사회와 지속가능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만, 지역 사회의 관심과 행동을 방해하는 요소가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돈'이다.

■ 글로벌 친환경

대기업, 은행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퓨리서치의 2016년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 중 27%만이 정부 기관을 신뢰한다고 밝혔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신뢰 문제로 인해 사회 자본과 재정적 자유가 줄어들고 있다. 남아프리카대학(UNISA)은 "대다수의 가구는 정치인을 비롯한 의사 결정권자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인해 재정 문제에 대해 자유를 느끼지 못한다."고 전했다.

중국에서 브라질에 이르기까지 여러 국가에서 회의주의가 증가하고 있다. OECD/갤럽에서 각국 정부에 대해 실시한 2016년 세계 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정부에 대한 신뢰는 2009년 70%에서 42%로 감소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일까?

시민들은 국가와 정부가 더 이상 현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신뢰와 힘이 없다고 느낌에 따라, 시민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각 도시와 대도시 지역에 달려 있다고 믿고 있으며, 이들이 책임을 주도하고 있다.

경제적 불안정과 정치적 분열로 인해 5,400만 명의 멕시코인들은 특히 식량과 농업 부문에서 지역 운동을 강화했다. 멕시코는 '패스트 푸드화'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에 힘입어, 현지 셰프들이 국제적인 호텔에서 한자리를 차지하는데 성공했다. 2016년에는 59에이커의 토지가 와하카 지역 농부들에게 되돌아갔다. 전국 옥수수 재배자 협회의 부회장인 앨런 탱크는 "지역 사회를 대표하는 가치는 놀랄만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에서는 사회적 필요와 요구가 훨씬 더 복잡해졌지만,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규정은 아직 미비하다. 이로 인해 2007년 이후 비정부 시민 단체에 대한 지역 사회의 기부가 늘어나 2016년에는 네 배나 증가한 160억 달러에 육박했다.

중국에서 시민 참여는 까다로운 사안이지만, 2016년에 기금 합법화 및 기부자 보호 등 첫 번째 자선 법률이 통과되면서, 국가가 적어도 일부 시민 단체를 장려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 아직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지만, 시민 단체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엄청난 진일보로 평가한다.

자동화의 위협과 불확실한 노동력으로 인해 지역사회 운동가들은 지역사회 내에 자본



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전의 지역주의 운동과 비교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바로 애국심보다는 지역 사회 생존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 지역사회 자본주의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차원의 행동을 제안하는 비영리 단체 On Prosperity's Road의 도시 기획자 겸 창립자인 그랜트 헤닝거는 "이것은 바로 미국 산 제품 구매와 지역산 제품 구매의 차이입니다. 지역 사회에서 소비한 모든 돈은 지역 사회에 고스란히 남는거죠."라고 전한다.



이는 단지 미국에서만 나타나는 정서는 아니다. 2017년 영국 구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에 50만 파운드 이하의 매출을 올린 기업은 58%에서 78%로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이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BuyNaijaToGrowTheNaira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장려한다.

중국에서는 이미 이 운동이 진행 중이다. WGSN의 에디터인 샌디추는 "과거에는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선진 경제가 선망의 대상으로 자리했지만, 2017년 서구 민주주의가 사회적인 혼란에 직면하면서 이같은 마인드에 변화가 일고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정학적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는 중국 소비자 정서에 기인한다.

남아공에서는 새로운 "지역 경제 활성화(Be Local-Buy Local)"운동이 현지 기업을 지원하고 아프리카 공예와 전통을 기리는 두 가지 이유에 힘입어 번성하고 있다. 남아공의 문화 지도자인 트레보스터먼 이같은 움직임이 경제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믿는다.

트레보 스테먼은 "아프리카인들은 그들 문화의 주인이 되어, 수익을 창출해야 합니다."라고 전하며 고급 보석을 한 예로 든다. "아프리카산 금과 원석이 유럽으로 보내져 화려한 액세서리로 만들어지고, 다시 아프리카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현지산 고급 제품의 가치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3) 걱정근심 거부

전 세계적으로 불안의 물결이 밀려들고 있다. 주변을 둘러보면, 최근 몇 년 동안 문화는 물론 물건을 구매하고 소통하는 방식, 심지어는 폭풍 트윗까지 모두 불안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주도되고 있다.

'청년 위기' 또는 신경안정제의 이름을 딴 '제넥스 세대'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Generation Anxiety는 전 세계에 청취자를 두고 있는 팟캐스트로, '종말을 물려 받은 세대', '하늘을 치솟는 월세' 등의 에피소드를 내보낸다.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불안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검색어는 2015년 이후 두 배 증가했으며, 2017년 아일랜드와 호주에서 가장 큰 폭 상승했다.

반(反) 불안 산업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8,0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웰빙 관광, 관련 앱, 미용 제품 및 회복 운동을 비롯한 웰빙 시장의 성장은 2020년 내내 강세를 유지할 것이다. 한편,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디자인이 시장 점유를 늘려가고 있다. 심지어 안정제로 종종 사용되는 미국의 대마초 시장은 2020년까지 1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관련 일자리가 814,000개나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사람의 불안이 연기처럼 사라질 수는 없다. 2018년에 논란 많은 선거, 도심 내 일자리와 저렴한 주택의 부족, 전쟁과 테러의 두려움에 처한 국가에서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의 새로운 불안은 이전 세대의 불안과는 사뭇 다르다.

역학자들은 불안을 의학적 상태로 여기지만, 이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이되는 하나의 문화적 경험으로써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유스 세대가 말로 특히 이같은 사회적 문제의 확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영국 교육부의 2017년 연구에 따르면 "어린 소녀 세명 중 한명 이상이 불안과 우울증을 겪고 있으며, 이는 지난 10년간 10%나 증가한 수치로 전문가들은 이를 '서서히 진행되는 전염병'이라고 부른다. 미국에서도 자살 충동으로 인해 아동 병원에 입원하는 어린이와 청소년 수가 2008년 이래 두 배 이상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걱정근심에 반대하는 해결책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선택적 무관심이 해결책 중 하나로 자리할 것이다.



■ 선택적 무관심

선택적인 무관심이라고 하면, 첫 반응은 보통 혼란스러운 경향이 있다. 요즘 사람들을 이처럼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것은 바로 무관심이 아닐까? 무관심하고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이유일까? 선택적 무관심은 이와는 다르며, 균형 잡힌 정신 상태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열쇠다.

배려와 연민은 인간의 훌륭한 감정이다.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면 어떻게 될까? 열정은 어떤 상황에서 집착으로 변질될까? 열정이 집착이 될 때, 근심으로 발전한다. '이 이상 더 할 수 없다'는 정신적 고통은 흔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택적 무관심은 사람들이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조절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Life Hack의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살피고, 기쁨을 찾는 것을 총체적으로 바라본 다음, 투자한 시간과 결과를 비교해봐야 한다고 제안한다.

'목적', '의미', '이유'와 같은 단어는 종종 여기에서 흘러 나오고, 이 세 단어를 연결하는 단순한 진실은 초점과 방향 감각을 찾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초점이 '모든 것'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무관심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특정한 목표를 선택할 수도 있다. 소중한 노력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더 나은 결과를 얻고, 따라서 불안감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선택적인 무관심은 또한 불완전성을 수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배스대학교와 요크 세인트 존 대학교의 2016년 연구에 따르면,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X세대와 베이비부머 세대는 불완전함에 더욱 관대한 반면, 밀레니엄 세대는 완벽에 집착한다.

"밀레니엄 세대는 자신이 처한 환경이 완벽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는 확률이 33%나 높고(사회적으로 처방된 완벽주의), 타인으로부터 완벽을 기대할 확률이 16%나 높다(기타 완벽주의). 그리고 자신을 완벽하게 하는 비이성적인 욕망을 가질 확률이 10%나 더 높다."

ECO융합섬유연구원



(4) 불완전주의

앞으로 10년 간 싱가포르에서 어떤 변화를 보고 싶냐는 질문에 17세 풀리(Fuli)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10년 후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한다.

풀리는 싱가포르에서 성장하고있는 창조적인 커뮤니티 중 하나로, 패션 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Youths in Balaclava (YIB)의 소속이다. 6명의 친구로 시작된 이 커뮤니티는 일종의 언더그라운드 움직임으로 발전하면서, 컬트 셀럽의 명성을 얻게 됐다. 그렇다면 왜 YIB인가? 이들은 탄탄하게 조직되어 있고, 의욕이 강하며, 성취에 집착하고 실패를 두려워 하는 싱가포르식 사고 방식인 키아수(驚輸) 문화를 반대하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에서 자라면, 의사나 변호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공부를 못하면 무시당하죠.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도 열심히 공부하는 바람에 진정으로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라고 익명의 YIB 회원은 데이즈드 매거진에 전했다.

'불완전주의자'들은 자아를 보살피는 것보다는 인식하는 것에 관심을 둔다.

불완전주의자들은 분노에 빠진 부류가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다. 이들은 거친 유머와 아이러니, 자기 비하를 즐기며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고 실패를 받아들인다.

■ X세대 사고방식

불완전주의자들은 연령에 상관없이 냉소, 개인주의, 기업가 정신으로 대변되는 X세대의 행동 방식을 따르고 있다.

"X세대가 성인이 되어 성생활을 즐길 무렵 에이즈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학을 졸업할 무렵인 1987년에 주식시장이 붕괴되면서 취업 시장도 바닥을 쳤죠. 그리고 90년대 중반에 닷컴버블이 터졌으며, X세대가 일궈온 일자리가 한순간에 증발해 버렸습니다."라고 연구원인 걸린다 그림스는 전한다.

게으르다는 고정관념에도 불구하고, X세대는 현실을 검허하게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앞만 보고 나갔다. 또한, 반대하는 기성 시스템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이를 변화시켰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것이야말로 불완전주의자들의 근본적인 신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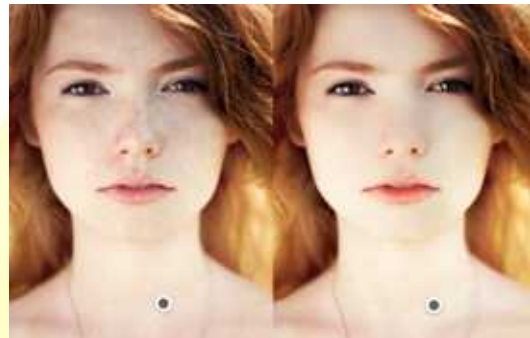
■ 완벽에 대한 거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의 리얼한 모습을 요구하면서, 최근 몇 년 사이 이미지를 보정하지 않은 광고가 증가해 왔다. 이렇게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기업은 여전히 완벽을 앞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업 역시 앞으로 이를 선택 조차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프랑스는 2017년 비현실적인 신체 이미지와 섭식 장애를 막기 위해 디지털 보정된 모든 사진에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이스라엘은 2012년 포토샵으로 보정된 사진사용을 금했다.

일부 기업은 포토샵 보정 사진을 금지하거나 경고 라벨을 추가하는 등 이같은 법률을 지원하고 나섰다. 2017년 프랑스 법에 따라 게티 이미지는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몸을 작게 또는 더 날씬하게 보정한 포토샵 사진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CVS 편의점은 2020년까지 지나치게 보정되지 않은 사진에 'CVS 뷰티 마크'라는 라벨을 부착할 계획이다.



■ 냉소적인 하위 문화

불완전하거나 심지어 게으름을 즐기는 여러 하위 문화가 등장하고 있다.

핀란드어 Kalsarik 'nnit는 직역으로 '속옷 차림으로 술에 취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용어로, 현재 핀란드에서 떠오르고 있는 움직임이다.

중국에서는 도시 젊은이들이 '죽음'을 연상시키는 한자어인 상(喪)을 딴 '상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다. 인터넷 셀럽, 음악, 모바일 게임, TV 프로그램에서는 '상 문화'를 통해 젊은층 문화에 침투하고 있으며, 베이징에 있는 'Sung Tea' 찻집에서는 '낙오자' 홍차라는 이름이 붙여진 차를 판매하기도 한다. 인도의 월플라워 걸스 커뮤니티는 20대 여성의 추하고 솔직한 이면을 모두 받아들인다. 털이 무성한 다리, 다듬지 않은 눈썹, 평범한 몸매를 선담은 만화에는 "이제 겨우 오후 3시야. 아직 와인을 꺼내서는 안 돼", "실존의 비애에 괴로워 하지마."와 같은 문구가 적혀있다.



(5) 책임있는 윤리적 첨단기술

2017년은 첨단기술과 관련한 윤리적 전환 시점이었다. 소셜미디어 전쟁, 온라인 왕따, 기록적인 정보유출은 전 세계 곳곳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자동화의 위협,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 첨단기술 업체의 규모 확대에 대한 우려까지 합세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규칙을 파괴'하는 태도가 제도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기 시작했다.

시민들의 반발 외에도 기업 주주와 정부가 윤리적 문제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투자 기업 두곳에서 애플 아이폰 사용이 아동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상대로 부정적인 콘텐츠를 보다 책임있게 관리하라는 주주 제안서가 두 차례 제출되기도 했다.

그 외에도 널리 알려진 쟁점으로는 정부 규제를 들 수 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특정 시간 내에 불쾌감을 주는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으면 소셜미디어 업체에게 벌금을 물리는 혐오 발언법이 생겨났다. 이 법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보호 장치로 작용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검열의 족쇄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첨단기술 기업들이 올바른 행동을 실천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동의한다.

첨단기술 윤리학자인 헤맷트 타네자는 첨단기술 업체가 두 가지 무형 요소를 제품에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자체 규제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실리콘 벨리가 집단적 '해커 기업의 전형'에서 공감하는 기업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인과 언론 및 시민들의 비판에 자극을 받은 페이스북은 공감을 수용하고 있다. 페이스북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외주 연구를 통해 2018년 뉴스 피드 기능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발표했다. 사용자에게 읽기 또는 시청을 요구하는 광고, 동영상, 기사를 포함한 수동적인 콘텐츠를 축소하여 사용자들이 지인들과 공유하는 콘텐츠에 우선 순위를 둘 방침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페이스북의 광고 수익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광고 수익은 더 이상 우선순위가 아니다.

"저희는 페이스북 서비스와 제품이 재미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을 개편해나갈 겁니다."라고 마크 저커버그 CEO는 전한다.



첨단기술 업체들은 가장 먼저 제품을 들고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더 탄탄하게, 더 좋게, 더 빠르게, 더 강하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최신 스마트폰과 초박형 노트북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4,500개의 애플탑 또는 4,470만 톤의 전자기기 쓰레기가 생겨나고 있다.

유엔 대학의 2016년 연구조사에 따르면 2014~2016년 사이에 전자기기 쓰레기 발생량은 8% 증가했으며, 2021년에는 1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첨단기술 재활용

전자기기 쓰레기와 관련된 건강상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전자제품을 재대로 재활용 처리하지 않을 경우, 공기와 물 또는 음식물 주변으로 독성물질이 방출되어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전자제품 중 평균 20%만이 재활용되고, 약 80%는 쓰레기장으로 흘러들어간다.

사물인터넷으로 인해 더 많은 기기가 생산됨에 따라, 전자기기 쓰레기에 대처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패션업계에서 순환형 디자인 및 수선에 투자하고 있는 것처럼, 첨단기술 분야도 이같은 추세에서 크게 뒤쳐지지 않았다.

이러한 움직임에는 당연한 이유가 있다. EPA에 따르면, 재활용되는 백만 대의 휴대폰 당, 구리 16,000kg, 은 350kg, 금 34kg, 팔라듐 15kg이 회수 가능하며, 잠재적으로 수백만 달러의 재료비 절감 효과를 가져다준다.

애플 아이폰 분해 로봇인 '리암'은 폐기된 아이폰을 단 11초 만에 분해하고, 재사용 가능한 부품을 따로 분리한다. 애플은 2,800만 달러 상당의 재사용이 가능한 자재를 4 천만 달러에 인수했다. 델 컴퓨터는 2018년에 래티튜드 노트북의 마더보드에 중고 전자제품에서 추출한 재활용 금을 사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0년까지 4500백만 킬로그램에 달하는 제품을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골드 플랜'의 일환이다.

많은 사람들이 재활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첨단기술 기업은 쉽게 분해 가능하고 수리할 수 있는 모듈형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

고 믿는다. 그 예로, 오랫동안 사용하고 쉽게 수리할 수 있는 모듈형 스마트폰인 페어폰(Fairphone)을 들 수 있다.



(6) 증강현실주의

소비자들은 첨단기술 기업이 보다 윤리적이고 책임 있게 사업을 운영하기를 기대하지만, 기술 의존도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 좋은 싫든간에, 기술과의 상호 의존 관계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사냥 도구를 만드는 원사인에서부터 산업혁명의 태동에 이르기까지 첨단기술은 인류를 발전시켜왔고, 이는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과거의 기술과는 달리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혁신의 속도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계가 인간의 통제권을 거머쥐었다고 느끼게 한다.

이 같은 두려움에는 진실이 담겨 있다. 스마트폰 중독의 증가, 사회성 저하 및 GPS에 대한 의존도로 인해 사람들이 편의를 위해 통제력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2016년 연구에 따르면 18~44세 중 67%는 재래식 지도를 읽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에 첨단기술의 발전을 받아들이면서도, 인간의 삶을 소비하기 보다는 최적화하는 첨단기술을 요구하는 '증강현실주의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 첨단기술 낙천주의

모든 사람이 로봇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개선해주기만 한다면, 기계 학습에 대해 상당히 낙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인, 캐나다인, 영국인, 중국인, 브라질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52%는 인공지능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믿고 있고, 82%는 인공지능과의 최근 상호작용이 긍정적이었다. 흥미롭게도 92%의 응답자는 인공지능이 결국 현실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며, '이길 수 없다면 손을 잡아라'라는 태도 변화를 보였다.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의 결합인공지능은 미래를 이끌어 갈 지능일 가능성이 높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의 결합이 기하급수적인 생산성을 낼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것은 바로 증강된 지능이며, 급속히 증가하는 신경과학 산업 뒤에 자리하는 원동력이다.

뇌-뇌 접속 기술은 미래의 개척 분야다. 아직은 허황된 아이디어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이 기술은 일상생활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있으며, 증강현실주의자들이 이를 앞서 받아들이고 있다.



"인간은 이미 사이보그와 마찬가지로입니다. 휴대폰과 컴퓨터는 이제 분신과도 같은 존재지만, 손가락의 움직임이나 언어로 이루어지는 인터페이스의 속도는 아직까지는 매우 느립니다."라고 두뇌의 기능을 증강하는데 주력하는 Neuralink사의 엘론 머스크는 전한다. '신경 레이스'라고 불리는 뇌에 연결된 이식 장치는 사람들이 키보드나 트랙패드없이도 컴퓨터와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해준다. 엘론 머스크는 이 기기가 몇 년 후면 시판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2017년 위츠 대학교의 엔지니어들은 인간의 두뇌를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연결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Braininternet' 프로젝트는 본질적으로 두뇌를 월드 와이드 웹(WWW)의 인터넷 노드로 전환시킨다."

뇌 이식을 통한 기억력 증진을 위해 주력하는 '신경 보철' 업체 Kernal의 설립자인 브라이언 존슨은 증강현실은 차세대를 이끌 발전 분야라고 여긴다.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이 만나면, 사고, 창의력, 지능을 포함해 인간의 역량은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로 진보할 것입니다.

■ 증강된 인력

증강현실주의자들은 미래의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자동화윤리 담당자, 대화형 챗봇 디자이너 등과 같은 새로운 직종이 등장할 것이다. 링크드인의 2017년 떠오르는 직업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최고의 직업은 기계 학습 엔지니어이며 데이터 과학자가 그 뒤를 잇는다. 가트너는 2020년까지 '인공지능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기 보다는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 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18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대신 23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가트너의 스베틀라나 시쿨러 연구담당 부사장은 "과거에도 주요혁신으로 인해 일시적인 실업이 야기된 적이 있었지만, 이 후에는 다시 회복되어 비즈니스 변혁이 뒤따랐습니다. 인공지능 역시 이 같은 패턴을 따를 겁니다. 불행하게도 실직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인공지능을 자동화와 혼동하여 인공지능이 주는 엄청난 혜택, 즉 인공지능 증강,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의 시너지와 같은 혜택을 제대로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라고 전한다.

1.3 산업의 주요 트렌드

지역 사회 성장과 지역 시민 참여를 우선 순위로 삼는 집단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간단히 말하자면, 솔루션의 일부가 되어야 하고,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1) 콘텐츠보다는 맥락이 중요하다

거창한 메시지를 잊고 '고객을 여정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 소비층은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행동을 원한다. 기업들은 지역 사회에 진정한 헌신을 기울이거나, 지역사회 운동가들의 구매력을 자극하는 이슈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최근 콘(Cone)에서 밀레니엄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연구에 따르면, 밀레니엄 세대 열명 중아홉 명이 자신이 믿는 가치와 어느정도 통하는 브랜드를 선택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 뿐만 아니라, 밀레니엄 세대는 더욱 값비싼 물건을 구매하든, 구매보다는 공유를 선택하든 간에 자신이 관심있는 이슈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라면 개인적인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다.

▶ 사례 연구

애플은 '환경에 미치는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책임을 늘리자'는 간단한 메시지와 함께 2017년 환경 책임 보고서를 공개했다. 모든 기업이 반응 시간이나 유연성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은 사회적 책임에 따른 자사의 역량과 입장을 전략화해야 한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는 없다. 에델만의 Earned Brand Study에 따르면, 전세계 응답자 중 65%는 동참해야 할 의무에 대해 침묵하는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Silence is
not golden.

The Economist Group

(2) 암호화 지역 경제

주류 금융 기관에 대해 세계적인 신뢰가 떨어지면서, 지역사회운동가들은 현지 암호화 통화를 포함한 새로운 지불 및 금융 계획을 시험하고 나섰다.

▶ 사례 연구

텍사스 오스틴의 디지털 화폐 CityShares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거래로 거주자들에게 현지 기업에 투자하도록 권장하고, Austin.City는 호텔 예약, 음식 배달, 레스토랑 예약 및 현지 예술가가 만든 상품을 제공한다. 아울러 기업과 고객 간 직거래를 통해, 익스피디아 또는 Booking.com과 같이 중소기업에게 수수료를 청구하는 제 3

사를 배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바이는 2016년에 디지털 통화 엠캐시(emCash)를 출시했으며, 영국 북동부에 있는 도시 헐(Hull)에서는 2015년에 출시된 가상화폐인 헐코인(HullCoin)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한다.

(3) 기업 가치 함양

2020년에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보다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존재로 자리매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지역사회 운동가들에게 가격 할인이나 번들 상품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바로 기업의 가치다.

기업과 비영리 단체가 사회 변화로 인한 혜택을 얻도록 도움을 주는 토론토 기반 컨설팅 업체 Impakt Corp의 창립자인 폴 클라인은 기업 복지의 미래는 팀워크 활동(자선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보다는 직원의 전문 기술과 능력을 활용하여 비영리 단체와 그들의 제휴사가 파트너가 역량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데 중점을 둔다고 전한다.

▶ 사례 연구

2020년 오픈 예정인 아마존의 새로운 본사에는 220명의 사람과 애완 동물을 상시 수용하는 노숙자 쉼터가 마련되어 있다. 한편, 리바이스 뮤직 프로젝트는 문제 청소년들을 위한 음악 교육과 리소스를 제공하기 위해 영국과 미국에 커뮤니티 센터를 세우고 있다.

ECO융합섬유연구원

(4) 시간을 아껴주는 전략

소규모 소비자 세그먼트를 공략하는 서비스는 2020년 시장 점유를 차지하며,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시간에 쫓기는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것이다.

▶ 사례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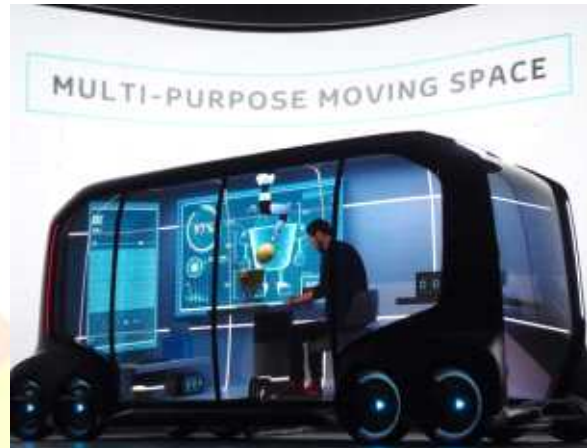
월마트의 기술 인큐베이터인 Store No.8은 '뉴욕의 바쁜 엄마들'을 대상으로 퍼스널 쇼핑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문자를 통해 주문을 넣으면, 24시간 이내에 집까지 배송해준다. 이 업체는 또한 성공적인 시범 운영 후 미국에 있는 100여 개의 신규 매장에 'Scan & Go'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고객들은 이 앱을 사용해 스마트폰으로 장을 보고 물건에 대한 값을 결제할 수 있다. 육아나 가족에 대한 긴급 상황으로 인해 매장에서 신속하게 장을 봐야 하는 부모들에게 좋은 옵션이다.

JD.com의 오프라인 매장인 7Fresh는 매장 내 경험을 보완하기 위해 고객이 모바일 앱을 통해 구매하고 물건 값을 지불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구매 경로를 간소화하기

위해 구매자가 원하는 진열대로 안내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스마트 쇼핑 카트를 갖추고 있다.

마이크로 세분화를 위한 진정한 승자는 '도시 마켓'을 형성하는 자율 차량 네트워크인 토요타의 e-팔레트일 것이다. 자동화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토요타 자율 주행 차량은 뮤직 페스티벌, 거리 장터, 스포츠 이벤트로 이동하도록 프로그래밍할 수 있으며, e-팔레트는 새로운 시장이나 소비자를 상대로 테스트하려는 브랜드와 소매업체를 위한 솔루션이라고 제안한다.

토요타는 피자헛, 아마존, 디디추싱, 마쓰다, 우버와 같은 브랜드와 제휴해 새로운 로밍 소매 컨셉을 작업하고 있으며,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e-팔레트 시스템을 선보일 예정이다.



(5) 지금 보고 바로 구매기능

라이브 스트리밍은 2017년 아시아 시장에서 중요한 쇼핑 방식으로 자리매김했다. 알리바바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타오바오 쇼핑 앱의 기능으로 추가시키며, 이를 중국 전역에 널리 보급했다. "브랜드와 인플루언서들이 이커머스와 통합되어 있는 라이브 스트리밍 쇼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동영상 시청을 즐기며 시간을 보내고,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화면 속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기능에 더욱 익숙해지고 있다"고 전한다.

5G 네트워크 및 라이브 스트리밍 기술에 힘입어 2020년까지 여타 국가에서도 이처럼 아시아의 '지금 보고 바로 구매'하는 추세를 따라잡을 것이다.

'지금 보고 바로 구매' 방식은 지역 사회 운동가와 함께 지역 사회 참여를 유도하며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네덜란드 알크마르에 있는 '칸스 치즈샵'은 5일 동안 매장을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하며 57,000여 명의 방문객을 불러 모으고 500건이 넘는 해외 주문을 받았다.

▶ 사례 연구

미국에서는 '지금 보고 바로 구매'하는 시장이 유스 인플루언서들로 가득한 P2P 인스타그램 스토어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한편, OHT에서는 '사생활 엿보기'식의 쇼핑을 선보인다. 인플루언서들은 각자의 집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새물건과 중고품을 판매하고, 시청자들은 이들과 실시간 채팅을 하며 스타일링 조언을 구하거나, 다른 시청자들과 소통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Z세대의 쇼핑 천국인 셈이다.

(6) 불완전한 광고

글로시에, 디젤 등의 브랜드는 물리적 불완전함에 가치를 두고 있지만, 이는 파격적인 다크 유머로 실패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시각적 타깃에서 탈피한 반가운 현상인 셈이다.

▶ 사례 연구

OkCupid의 최신 캠페인은 '대마초를 즐길 시간(Down to four twenty)', '대통령을 씹을 시간(Down to fight about the President)'과 같은 슬로건을 사용한 DTF (Down to F**k) 약자를 내건 최신 캠페인을 선보였다.

영상자료 업체 Dissolve와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 And/Or Studio는 센스 없는 광고 주들을 겨냥해, '이것은 평범한 밀레니엄 세대 광고'라는 패러디를 선보였다.

(7) 차세대 인터페이스와 몰입형 경제

첨단기술에 늘 중단없이 연결된 삶을 원하는 이 소비층은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과 제품의 편에 선다.

음성 기술 외에도 모바일 UX 분야의 차기 주자는 바로 제스처이며, 브랜드들이 어떻게 흔들림, 회전, 기울기, 스와이프 등의 동작을 사용자 환경의 일부로 접목해 더욱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고, 사용성과 사용자 보유를 보장하는 매력있는 행동을 유도할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시된다.

원터치 스크린 기능은 공중 제스처로 발전할 것이다. 사용자들은 실제로 전화기를 만지지 않고도 스와이프, 핀치, 줌인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사용자 환경은 더 이상 공상과학 속에 나오는 환상이 아니라 시판을 앞두고 있다. 애플의 공급사 중 두 곳인 Lumentum과 Finistar의 3D 센서는 애플의 증강현실 기능과 접목되어 공중 제어 기능을 제공할 가능성을 앞두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서도 차세대 인터페이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닛산의 B2V 시제품은 방향 전환이나 제동과 같은 움직임을 예상하도록 돕는 헤드셋을 통해 운전자의 두뇌에서 보내는 신호를 해석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율 주행을 생각할 때, 인간이 기계에게 통제권을 넘겨준다는 상당히 비인간적인 미래에 대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닛산의 다니엘 설락 수석부사장은 전한다. "실제로 B2V 기술은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인간의 두뇌에서 나온 신호를 사용해 운전을 더욱 흥미진진하고 즐겁게 만들어 줍니다."

구글 글래스와 스냅챗의 저조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증강현실 안경은 여전히 투자 가치 있는 첨단기술로 자리한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CEO는 증강현실의 최종 목표는 바로가상의 사물을 현실 세계에서 보여주는 가벼운 안경이라고 말한다. 페이스북은 자사의 가상현실 계열사인 오кул러스와 함께 '2차원 스캐너가 장착된 도파관 디스플레이'의 특허를 출원했다. 오

쿨러스의 선임 연구원인 마이클 어브래쉬는 증강현실 안경은 "적어도 2022년까지는 기존의 스마트폰을 대체하지 않을 것"이지만, 2020년 경에는 얼리 어댑터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예측한다.

▶ 사례연구

2018년 디트로이트 오토쇼에서 혼다는 홀로렌즈 (HoloLens)와 제휴해 신차를 시연해 보였다. 차량에 탑승시 가상 화살표가 '인포테인먼트 센터'인 계기판과 내장 액세서리에 맞춤형 옵션을 표시해준다.

생중계되는 스포츠 경기는 증강현실/가상현실 경험을 활용해 더 많은 팬을 확보하고, 광고주의 지출을 늘린다.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협회는 인텔과 손을 잡고 가상현실로 경기를 실시간 중계한다. 미식축구협회와 UEFA 챔피언 리그 역시 가상현실을 시범적으로 사용하며 높은 수준의 참여를 얻고 있다.

인텔은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제휴해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5G 무선 인터넷, 몰입형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시청, 인공지능 리포터를 선보일 예정이다.

2018년 출시된 Vuzix의 첫 알렉사 기능 탑재 스마트 안경은 착용한 사람이 알렉사에게 질문을 하면, 질문의 응답이 화면에 표시된다. 예를 들어, 리틀 블랙 드레스를 검색하면 안경 착용자의 구매 내역을 바탕으로 응답을 제시해준다.

Black Box VR은 30분 간의 가상현실 경험을 통한 전신 운동을 개발했다. 맞춤형 운동 기기와 HTC Vive 헤드셋을 사용하는 이 운동은 기내 화장실만큼의 공간만 있으면 된다.

ECO융합섬유연구원

2 천연 융복합 패션소재 마켓 분석

2.1 패션마켓과 천연 융복합 소재

패션 마켓에 천연 융복합 소재가 어떤 방향으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글로벌 리딩 남녀 브랜드 컬렉션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1) 여성 우븐 의류의 천연 융복합 소재 활용

2018년 FW, 19SS 컬렉션에서는 섬세한 투명도를 활용한 촉감적인 헤리티지 믹스와 스포츠웨어의 미래적인 영향이 중요하게 자리하였다.

■ 면/실크의 매끈한 새틴 외관

광택 새틴 트렌드가 계속되고, 부드럽게 떨어지는 유연함과 드레이프감이 핵심으로 자리한다. 여성스런 드레스와 상하복, 눈에 띄는 아우터웨어에 사용한다.

실크 같은 부드러운 소재는 표면이 매끈하고, 부드럽게 흐르는 디자인에 사용해 여성의 라인을 살려준다. 매끄러운 고광택 룩을 연출하려면 셀룰로오스와 혼방사를 사용해 지속가능한 옵션을 완성한다. 무게감 있는 구조적인 면수자 소재는 입체감 있는 디자인에 적합하다. 셀룰로오스와 혼방 소재를 지속가능성 옵션으로 사용하고, 대비 색상으로 이음처리해 효과를 극대화한다.



■ 헤리티지 울 믹스

클래식 원단을 독창적으로 겹치고, 장식하거나 형태에 변화를 줘 새롭고 여성스런 콜라주로 연출한다.

발렌시아가에서는 클래식 소재를 가벼운 폼 또는 고무와 접합해 극단적인 실루엣을 한껏 강화했다. 사토리얼 수트 소재는 전통 플레이드, 울 핀스트라이프, 코튼 개버딘 드릴, 새틴, 평직과 대조를 이룬다.



■ 가벼운 테일러드

잔잔한 분위기의 심플한 그리드 체크는 여름 테일러드 의상, 드레스, 볼륨감 있는 가벼운 상하복에 잘 어울린다.

가벼운 울, 코튼 또는 실크에 깔끔한 라인을 더해준다. 그리드는 초경량 원단에 사용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심플한 그리드 체크에 메탈릭, 질감 있는 슬러브, 팬시 원사의 흥미로운 원사를 활용해본다.



■ 화려한 실크혼방 자카드

자카드와 다마스크는 과거 태피스트리 및 화려한 인테리어에서 영감을 얻는다. 풍경 및 그림이 들어간 우븐 소재는 우아하고 색바랜 컬러, 플라워 패턴과 함께 무광으로 유지한다. 메탈릭사로 화려한 패턴을 한껏 살려주고, 드레스와 아우터웨어 등 파티 상품에 이상적이다. 프린트와 자수 원단에 사용하면 상업성을 살릴 수 있다.



■ 비치는 베일 시어

여성미와 반투명 효과 추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장식적인 기법을 사용한 초경량 소재가 떠오른다. 실크, 면, 비스코스 등을 활용한 시어 오버레이로 투명/불투명 효과를 활용한다. 반투명 소재와 대비되는 효과를 한껏 살려준다. 필쿠페, 데보레 기법을 통해 텍스처 효과와 대비되는 표면 밀도를 연출한다. 평평한 표면과 구김간 질감으로 대비감을 연출해 살짝 비치는 효과를 살려준다.



■ 우아한 벨벳

벨벳이 계속해서 런웨이에서 인기를 모으고, 타고난 고급스러움으로 심플한 실루엣을 한차원 높게 끌어올린다. 드레스, 자켓, 부드럽고 우아한 아우터웨어에 사용되는 세컨 및 광택을 대신하는 은은한 옵션을 제공한다.

조각적인 실루엣, 크러시드 텍스처, 비즈 장식으로 효과를 더한다. 천연 합성 혼방 소재는 윤기있게 제공되어, 광택 추세에 발맞춘다.



■ 편안한 데일리 코튼드레스

뽽뽽하고 깔끔한 코튼으로 볼륨감 있는 형태를 완성한다.

매끈하고 촘촘한 경량 원단과 비치는 마감처리를 사용한다. 중간 중량감의 코튼을 사용해 구조감을 살려준다. 데일리 룩, 심플한 드레스, 상하복은 헤트투토 스타일로 코디한다.



■ 셀룰로오스 셔츠 스트라이프

사토리얼 셔츠에서 이번 시즌 스트라이프 영감을 얻는다.

블루, 화이트 등 2~3색으로 구성된 심플한 디자인은 테일러드 의상과 드레스의 핵심이다.

코튼, 셀룰로오스 혼방에 배색 스트라이프와 비슷한 디자인을 조합한다. 유연하고 가벼운 원단에 사용해 리조트웨어를 업데이트한다.



■ 플라스틱 광택

천연 울 및 가죽, 비건소재에 코팅 마감, 플라스틱 효과로 광택 트렌드는 계속되고, 특히 아우터웨어 품목에서 눈에 띈다.

평직 및 사토리얼 체크 원단에 고풍택 PU 코팅을 사용한다. 투명 및 불투명한 플라스틱 모두 웬룩 광택 효과로 제공된다. 랑방은 옹브레 컬러를 사용해 효과를 강조한다.



■ 우아한 플리세

요철감있는 텍스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플리세와 가는 잔주름이 들어간 실크 크레이프로 볼륨감을 더해주고 찰랑이는 움직임을 연출한다.

우아한 드레스와 테일러드 의상에는 광택 마감의 플리세를 사용한다. 가벼운 무광 원단을 사용해 부드럽고 은은한 데일리 룩을 완성한다.

플리츠가 전년대비 5% 증가해 전체 런웨이 어패럴 중 7.4%를 차지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 지금, 이 같은 추세 업데이트로 플리세를 내세울 준비를 한다.



ECO융합섬유연구원

(2) 여성 니트 의류의 천연 융복합 소재 활용

노마드 트렌드의 보헤미안 패턴이 컴백하며, 노르딕, 페어아일, 나바호 및 아즈텍 영감 등으로 와일드 컨트리 디자인에 영향을 미친 자연과 인간을 중요시하는 트렌드에 발맞춘다.

세컨, 프린지, 메탈릭, 아이래시 코팅 및 틴셀 원사 등을 사용한 파티 룩은 특히 80년대 파티 분위기를 표현한다.

■ 텍스추어 베이직

골지 스티치는 컨템포러리 마켓에서 베이식에서 고급에 이르는 스타일로 업데이트된다. 골지는 플리츠를 대신하는 간소하고 스포티한 옵션이다.

부드럽게 흐르는 스타일로 간소하면서도 편안한 드레스와 상하복을 완성한다. 디테일은 가공된 플레이트, 프릴, 풀 패션 형태로 세련된 모습이고, 메리노, 울, 합성 혼방 소재로 구성된다.



■ 헤비 케이블

헤비 게이지 케이블은 세련되고 화려한 감각으로 나타난다. 라운드 소매와 롱 실루엣으로 볼륨감과 비율을 활용한다. 스포티 디테일, 절개, 장식으로 업데이트한다. 케이블은 전년대비 13% 증가하고, 은은한 노스텔지어 트렌드의 핵심으로 자리한다.



■ 소프트 로맨틱

화려한 로맨스와 은은한 노스텔지어 트렌드에서 전한 대로, 부드러운 원사가 핵심으로 자리한다.

파티웨어의 핵심으로 여성스런 레이어와 파스텔 컬러를 사용한다. 어깨 패드와 80년대 스타일이 트렌디한 룩에 적합하다.

모헤어와 앙고라는 전년대비 58.6% 증가해 전체 소재의 8.5%를 차지한다. 앙고라를 둘러싼 동물보호 문제에 맞서, 합성 소재와 윤리적인 소재 옵션을 대신에 사용한다.



■ 캐주얼 파티웨어

파티웨어 옵션이 대거 등장하면서, 반짝이는 원사와 장식이 강세를 보인다. 울 원사는 광택 세컨, 글로시 프린지 효과와 대조를 이룬다. 메탈릭 및 틴셀 원사는 브라이트 색조로 발랄한 느낌을 전한다. 장식이 꾸준히 목격되는 가운데, 주얼과 세퀸은 전년대비 40%, 27% 증가하고, 전체 장식의 2.8%, 2.7%를 차지한다.



■ 그래픽적인 스포츠

스포츠 니트의류는 알파인 및 스키 풍의 이미지의 주요 영감으로, 그래픽은 모노크롬 색상, 브라이트 액센트로 대담하다.

편평사로 매끄러운 소모사 메리노와 뽀뽀한 합성혼방 원사에 강렬한 임팩트를 던진다. 이 발랄한 트렌드는 오버사이즈 핏과 슬림핏 스타일로 모두 나타난다.



■ 클래식 헤리티지 니트

울혼방이 주를 이루는 아가일, 체크 등의 헤리티지 패턴이 간소한 클래식 버전으로 새로워진다. 스포티한 브라이트 스타일은 젊은층 마켓에도 중요하다. 컨트리 라이프와 사색의 시대 트렌드를 반영한 스타일이다.



■ 시어 니트

2018 시즌 처음 눈에 띈 시어 효과는 19S/S에도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제 다양한 품목에 걸쳐 사용되는 살짝 비치는 스티치와 패널 효과는 폭넓게 어필한다. 캐주얼 룩과 포멀 룩에는 비침 효과를 레이어드 구조로 활용할 수 있다. 질감 있는 스티치와 패턴은 차분한 파스텔 톤의 코튼 및 혼방 섬유로 된 여성스런 아이템과 파티웨어에 제격이다.



■ 오픈워크

오픈워크 스티치는 여전히 여성스럽지만, S/S 18 시즌의 섬세한 모습에서 벗어나 심플한 전면 패턴으로 변화한다.

블루, 핑크, 옅티컬 화이트의 브라이트 색조로 눈에 띄는 스테이트먼트를 연출한다. 크로세와 오픈워크 니트 스티치로 짜여진 심플한 메시 효과로 산뜻한 컨템포러리 룩을 선보인다. 눈에 띄는 스트라이프로 앞선 감각의 룩을 완성한다.



■ 생기있는 스트라이프

스트라이프는 겨울 시즌 스포티 및 세련된 디자인으로 업데이트된다.

롱 실루엣, 헤드투토 스트라이프로 보다 대담한 룩을 추구한다. 얼룩덜룩한 스트라이프는 브라이트 컬러로 물들고, 블랙은 포멀웨어, 파티웨어와 잘 어울린다.

합성, 메리노, 코튼 혼방 소재로 구성해 제품 수명을 연장시킨다.



■ 이국적인 패턴

윈터 노마드 트렌드는 이번 시즌 니트웨어의 핵심으로 자리한다.
브러시드 울 원사, 드러나는 부편사와 실로 록에 촉감과 정통성을 더해준다.
미스매치 패턴, 나바호, 아즈텍 영감으로 새로움을 불어넣는다. 대담한 비율, 비대칭 디테일, 부드러운 레이어링을 사용해 옛지있고 앞선 감각을 선사한다.



■ 실크 패넬

플라워 패턴은 F/W 18 시즌 이래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다. 대중적인 트렌드로, 프린트, 자카드, 자수 등 다양한 기법으로 활용 가능하다.
프린트 실크 패넬은 웨딩, 섬머 파티 등의 화려한 어케이션웨어에 잘 어울린다. 빈티지, 야생화에서 영감을 얻어 여성스런 전면 플라워 프린트와 자카드를 완성한다.



■ 니트 패치워크

컨템포러리 룩에서부터 보헤미안 룩에 걸쳐 패치워크는 모든 마켓으로 확대되고 있다. 시각적인 인타르시아로 유행하고 있는 스트라이프, 체크, 블로킹 트렌드를 추구한다. 끊임 없이 진화하는 DIY 패치워크와 핸드메이드 트렌드에 발맞춰, 프린지와 우븐 아플리케를 사용한다.

메리노, 캐시미어 혼방의 간절기 니트에 사용하기 좋은 기법이다.



■ 프린지 디테일

프린지 디테일로 포멀웨어, 일상복, 파티웨어 등을 위한 공예 기법을 업데이트한다. 크로셰, 프린지, 마크라메 기법을 천연 원사 및 합성 원사로 사용한다. 니트, 테이프 원사, 마크라메, 가는 체인은 코튼, 혼방사에 적합하다. 이 룩은 윈터 노마드 트렌드의 핵심 룩으로, 전년대비 13% 증가하며 F/W 18 트리밍 및 디테일, 장식 리포트에서 전한대로 전체 디테일의 4.1%를 차지하며 여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3) 남성 우븐 의류의 천연 융복합 소재 활용

2018년 FW, 19SS 남성 컬렉션에서는 클래식 원단은 개성있게 조합되고 재해석된다. 부드럽고 포근한 원단은 따스한 느낌이 흐르고, 코듀로이는 한층 강화된 촉감과 고급스런 느낌을 선사한다. 한편, 플란넬과 울은 한결 부드러워진다. 텍스처는 자연스런 구김과 주름진 표면이 계속 중요하며, 볼륨감 있는 패턴이 들어간 켈트는 편안한 인테리어 패턴을 떠올린다. 광택이 핵심으로 리퀴드 광택은 아우터웨어에 세련된 광택으로 제시된다.

■ 고급스러운 코듀로이

부드러운 포근함을 추구하는 시즌 감각과 함께 코듀로이는 스마트 및 편안한 실루엣에 여유로운 럭셔리 감각을 제공하고, 캐주얼 스타일에 특히나 새롭게 느껴진다. 매우 가는 코듀로이에서부터 굵은 코듀로이까지, 다양한 크기의 코듀로이는 헤드투토 스타일 또는 촉감적인 상하복으로 착용된다. 대비 색상은 물론 소매와 주머니 디테일에 다양한 방향의 코듀로이를 사용해 본다.



■ 깔끔한 실용적인 코튼

뽳뽳하고 깔끔한 코튼은 오버사이즈 아이템과 과장된 디자인에 편안하고 꾸밈 없는 느낌을 더해준다.

무염 또는 평직 코튼, 내추럴한 컬러를 사용해 유틸리티 감각을 살려준다. 부드럽고 매끈한 감촉의 편안한 코튼을 선택한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착용한 중간 중량의 촘촘한 면 소재는 부드러운 테일러드 의상과 셔츠, 상하복과 같은 여름 필수 아이템에 깔끔해 보인다.



■ 촉감에 민감한 울

플란넬과 울 소재는 더욱 부드럽고, 축 처지고, 촉감적으로 변신한다.

보호적인 코쿤형 블랭킷에서 영감을 받아, 울과 캐시미어 혼방은 브러시드 및 은은하게 돌출된 마감을 통해 따뜻한 아우터웨어 소재에 고급스런 촉감을 추가한다. 정통 모직 표면은 부드럽게 워싱 처리된다.



■ 흐릿한 브러시드

고급스런 룩과 느낌의 흐릿하고 왜곡된 표면 효과를 연출한다. 클래식 체크 디자인의 울 혼방 소재는 워싱, 가벼운 펠트 처리된 원사로 흐릿한 효과를 제공하고, 자켓과 아우터웨어에 편안하고 캐주얼한 감각, 부드러운 촉감을 제시한다.



■ 링클 외관

수축된 광택 표면에서부터 캐주얼하게 주름이 진 셔츠 소재까지 다양한 원단에 질감과 구김간 효과를 활용한다.

구김간 입체적인 표면은 데님에 열처리로 더해져, 해지거나 구김 간 효과로 개성을 더하고 여전히 질감을 살려 준다. 테일러드 의상과 상하복에는 보다 차분한 감각으로 접근해, 주름과 구김을 은은하게 더한다.



■ 남성 시어

면, 혹은 실크 혼방 세미시어 원단의 다양한 중량과 구성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메시 구조로 경량 자켓을 업데이트하며, 비침을 없애기 위해 유공 또는 부분 시어 원단을 비침 없는 일반 원단 위에 덧댄다. 프린트, 스트라이프, 텍스처로 시선을 분산시킨다.



■ 천연+기능성 광택

광택 효과가 런웨이에서 액체 같이 반들거리는 표면으로 등장한다.

폴리우레탄 및 웨트 코팅은 방수처리를 뛰어넘어 시선을 사로잡는 광택으로 아우터웨어와 상하복을 업데이트한다. 기능성 마감을 더한 울에 영구 광택 효과를 입히고, 합성 혼방으로 일상복에 가벼운 중량과 기능성을 제시한다.



■ 부드러운 실크(라이크) 프린트

부드럽게 흐르는 실크 새틴과 혼방은 의상에 드레이프감과 광택을 더해준다. 실크는 프린트와 패턴을 활용하기 좋은 원단으로, 한여름 의상을 럭셔리한 느낌으로 완성한다. 친환경 셀룰로오스 원단의 유연한 특성을 살려 프린트, 전면 패턴, 컬러블로킹의 베이스 원단으로 활용한다. 싱글 프린트가 들어간 아이템을 착용하거나, 머리에서 발끝까지 프린트로 대담하게 코디한다.



■ 럭셔리 자카드

천연원사에 메탈릭 원사가 더하여져 짜여진 자카드는 화려한 광택이 흐르고, 이번 시즌에는 고급스럽고 장식적인 패턴으로 업데이트된다. 수트, 상하복, 캐주얼 스타일은 무광, 광택, 빛나는 새틴 마감의 다마스크로 새로워진다.

복고풍 인테리어 꽃무늬와 페이즐리 자카드는 모던한 원사와 마감으로 재해석된다.



■ 새로운 클래식

클래식 남성복 원단은 의상 전체에 사용되거나 대비되는 원단과 함께 사용되어 대담하고 새로운 클래식으로 재탄생한다. 헤리티지 수트 또한 킬트를 통해 입체감이 더해지고, 체크는 평직과 섞여 미스매치된다. 심플한 수트 원단에는 물빠진 듯한 색상의 스트라이프가 더해진다



■ 모든 체크와 스트라이프

온갖 종류의 체크가 F/W 18 남성복 런웨이에서 강세를 보이며, 다양한 품목을 이어준다. 클래식 컬러 우븐 울 소재와 러스틱한 대형 타탄 등의 플레이드로 스테이트먼트 아우터웨어를 완성하고, 눈에 띄는 패턴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착용하거나, 대비되는 색상, 크기 또는 디자인과 코디하거나 레이어드 룩으로 연출한다. 특히 남성복 스트라이프는 스마트 캐주얼 감각으로 제공하며 영패션 마켓에 적합하다. 스트라이프 패턴과 컬러를 조합하거나 머리에서 발끝까지 착용해 캐주얼웨어를 업데이트한다.



(4) 남성 니트 의류의 천연 융복합 소재 활용

일반적인 스타일이나 스포티한 스타일을 전체에서 그래픽 패턴이 공통적인 메시지로 자리한다. 그림 패턴이 들어간 니트, 다채로운 스트라이프, 추상적인 대형 디자인은 대담하고 앞선 감각이 느껴진다. 대거 모습을 보인 페어아일, 노르딕, 나바호 패턴 외에도 플레이드와 다이아몬드 인타르시아 또한 핵심이다.

■ 세미시어

울, 실크 및 합성 섬유 소재의 매우 가는 원사를 사용해 세미 시어로 완성된 베스트와 스웨터, 티셔츠가 등장한다.

현대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색상 선택이 중요하고, 연한 파스텔, 강렬한 옐로우, 터코이즈, 옅은 화이트를 사용한다.

우븐과 니트 의상의 레이어링과 매칭 스타일링으로 컨템포러리 사토리얼 룩을 연출한다. 경량 울 소재를 사용해 부드러운 브러시드 룩으로 감하거나 무광택 코튼으로 은은한 스포츠 룩을 완성한다.



■ 업데이트된 말드 니트

배색 스페이스 다이와 말드 원사로 가벼운 여름 분위기의 캐주얼 리조트 의상을 선보인다. 고급스러운 사토리얼 감각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뉴트럴 색조의 은은한 배색 대비 효과를 주거나 탁한 파스텔 톤과 혼합한다.

둥근 어깨선을 살린 실루엣과 두꺼운 3~7게이지 원사를 사용해 볼륨이 돋보이는 앞서가는 스타일을 만든다. 이 수수한 여름 스타일을 미래적인 기능성 원단이나 컬러풀한 립스탑 의상과 함께 스타일링해 새로운 감각으로 연출한다.



■ 컬러 케이블

케이블은 짙고 강렬한 컬러로 새롭게 제안되고, 래티스워크 구조의 피셔맨 케이블은 대형 크루넥 스웨터와 튜닉에 사용한다. 골든 옐로우, 스칼렛, 오베르진, 러스트와 같은 따스한 색조로 제시되며, 털 컬러로 울, 양모, 도니걸 트위드 원사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표현한다.



■ 플레이드 니트 타탄

지난 시즌의 컨트리 체크와 하운즈투스 패턴 대신 포근한 브러시드 울 또는 뽀뽀한 합성 혼방사로 핑크 타탄이 강세를 보인다. 클래식 블랙/레드 색 조합과 코발트, 핑크, 화이트가 나란히 사용되어 앞선 감각을 선보이고, 화이트, 오크는 새롭게 느껴진다.



■ 화려해진 페어아일

홈스펀 원사와 패턴에서 벗어난 다양한 페어 아일 패턴이 눈에 띄었다. 노르딕, 나바호, 셰틀랜드 패턴 등 다양한 영감이 다채로운 컬러와 어스톤 팔레트로 물들었다. MSGM은 스트라이프와 패턴이 충돌하는 앞선 감각을 선보이고, 화이트 마운티니어링은 시각적인 요크 디테일을 사용해 정통 스타일에 충실했다.



■ 강한 스트라이프

중요한 디테일인 스트라이프는 다양한 너비와 색 조합으로 등장한다.

메리노 원사로 된 와이드 스트라이프에는 브라이트 컬러를 사용해 스포티한 효과를 냈다. 그 외에는 텍스처 효과를 가미하거나 브로큰 또는 들쭉날쭉한 디자인의 더욱 앞서가는 스트라이프로 업데이트했다.



■ 레트로 아가일

이번 시즌 다이아몬드 패턴은 정통 스타일과 앞서가는 스타일로 모두 등장했다. 라프 시몬스는 과장된 대형 패턴으로 앞선 감각을 선보였고, 아미, 알렉산더 맥퀸은 레드/블랙 색 조합으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한편, 아스트리드 안데르센은 옐로우/화이트 콤비로 시즌을 초월한 매력을 선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사토리얼한 효과가 지배적이었다. 영캐주얼 마켓에는 심플해진 아가일 디자인을 사용하거나 앞서가는 아이템에 아가일 패턴을 사용해본다.



■ 터프한 타이다이

천연 소재와 잘 어울리는 타이다이라와 훌치기 기법은 도시에서부터 바닷가, 그리고 페스티벌과 바캉스 시즌에 이르는 다양한 의상에 잘 어울린다.

타이다이 염색보다 좀 더 세련된 옵션을 원한다면 배색 수채화 컬러와 모노크롬 효과를 사용한다. 영캐주얼 마켓에는 대담한 비율과 강렬한 색상을 사용한다. 강한 대비감을 주는 디자인과 브라이트 컬러는 새롭고 앞서가는 느낌이 난다.

타이다이는 간절기 울 또는 면 원단에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하며 정교하면서도 은은한 룩을 완성한다.



ECO융합섬유연구원

2.2 아웃도어 스포츠 마켓과 천연 융복합 소재

2018 아웃도어 스포츠 박람회에서 신체 상태에 대해 알려주는 제품이 출시되고, 형태, 배치, 기능성 향상을 통해 부상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기능성 제품들과 함께,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았다.

기업들은 이를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브랜드의 일부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아우터웨어를 포함한 의류소재는 라이프스타일 감각과 기능성을 함께 집중한다. 가벼울수록 기능성은 더욱 뛰어나다.

■ 북유럽 브랜드와 기능성 울

아웃도어 리테일러 박람회에는 스칸디나비아 빌리지와 바가 추가되어 최근 북유럽 브랜드의 북미 시장 진출 추세를 실감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We Norwegians와 Kari Traa는 기능성, 원단 혁신 및 새로운 패턴으로 선두를 달린다. 두 브랜드 모두 자사의 전통과 현대적으로 해석한 전통 민속예술을 활용한다. We Norwegians는 그동안 크게 조명받지 못했던 메리노 울의 장점을 살린 럭셔리 슬라운지웨어와 퍼포먼스 베이식 상품을 선보이고, Kari Traa는 다양한 니트와 메리노 베이스 레이어를 접목해 통기성, 움직임, 보온성을 동시에 제공한다.



■ 울마크 컴퍼니의 기능성

천연 및 지속가능성 섬유로의 추세를 반영해, Woolmark는 다양하게 활용한 울과 기능성을 진열한 아름다운 디스플레이로 주목받았다. 원단 스와치 대신에 베이스 레이어에서 풋웨어에 이르는 활용 방법을 선보였다.



■ 피로회복용 슬라운지 웨어

브랜드들은 퍼포먼스웨어를 뛰어넘어 편안하게 착용하고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의류 제작에 집중한다. 기능성이든 스타일이든 세트 의류와 단품 모두 강세를 보인다. 코듀라는 일본 브랜드 Narifuri와 손을 잡고 라운지웨어에 새로운 차원의 내구성을 보강해, 슬라운지웨어를 넘어선 활용성을 제공한다.

We Norwegians는 메리노 원단을 최대한 활용해 천연 기능을 갖춘 편안한 레이어링 아이템을 제작한다. 이 제품군은 탁월한 천연성으로 유아복 인증을 받기도 했다.



■ 천연 쿨링 효과

몸에 밀착된 베이스 레이어는 피부의 수분을 방출하고, 착용자의 체온을 적절하게 유지해준다. Ho Yu와 M.I.T.I는 혁신적인 3D 구조로 수분을 보다 빠르게 퍼질 수 있게 해 쿨링 효과가 뛰어나다. 메리노 울과 텐셀이 주요 섬유로 떠오르며 피부에 매끈한 느낌을 주고, 재활용 및 합성 섬유가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한다



■ 천연 경량 기능성

미드 레이어는 기후에 맞춰 조절하기 좋은 소재로 피부에서 살짝 떨어진 구조로 수분이 밖으로 방출될 수 있는 표면을 갖추고 있다. Pontetorto는 탄력이 뛰어난 가늘고 가벼운 원단을 선보였고, 이는 메리노와 텐셀 등의 천연 섬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3D 울

소프셀은 여름에 연중내내 활용할 수 있는 소재를 제공하고, 100gsm 이하로 가볍게 유지된다. 메시 안감과 3D 울로 균형감을 유지하고, 비우븐 단열 효과를 갖춘 세겹 디자인과 Becker Tuche, Dry-TEX의 삼중 직조 디자인은 새로움을 선사한다.



■ 어번 기능성

플레이드가 여전히 중요하지만, 크레이프 원단과 독특한 구조가 셔츠와 하의 품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내추럴한 감각이 자리를 굳히면서, 텐셀과 리넨 혼방 역시 늘어난다.



■ 기능성 벨벳터치

애슬레저 소재는 다양한 텍스처, 표면, 기능을 아우르며, 기능성 원단의 다양한 활용도와 마감을 보여준다. Maglificio Ripa에서는 벨벳 같이 매우 부드러운 촉감의 천연 섬유와 쿠프로로 고급스런 감각을 전한다. 메탈릭은 미래적인 감각과 업그레이드된 카무플라주 형태로 나타난다.



■ 친환경 브랜드 Nau 주목

Nau는 아웃도어웨어와 기능성웨어를 한데 묶는다. 이 브랜드는 지난 2007년 비즈니스와 혁신에 대한 반항적 도발정신을 담은 'UTW - Unf**k the World'라는 코드명과 함께 '나우 프로젝트'에서부터 시작됐다. 지속가능성을 소리치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실천하며, 재활용 다운과 시어링으로 보온성을 보강한 F/W 18 컬렉션을 출시했다. 신상 하이퍼스페이스 니트에는 유기농 면 소재와 재활용된 폴리에스테르를 사용하고,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잡아두는 단열 보온 기능을 제공한다. 스타일은 전반적으로 퍼포먼스 룩을 추구하지만, PFC나 유해 화학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소재를 사용한다.





ECO융합섬유연구원

-
- ▶ 5G 네트워크는 원활한 연결 속도를 가져다주고, 기록적인 모바일 커머스 매출을 유도할 것이다. 기업들은 2020년도에 경쟁할 수있는 속도(빠른 로딩 페이지는 필수 사항)와 최적화된 결제 시스템(원클릭 주문)을 고려해야 한다.
 - ▶ 비주류에서 주류로 거듭날 새로운 민족과 인종이 주요 성장 분야로 자리한다. 낀세네라, 두차례의 이드, 라마단을 비롯한 이벤트 기반 디자인과 제품에는 엄청난 성장 기회가 있지만, 이런 기회를 활용해 시장 점유를 위협할 수 있는 파격적인 현지 브랜드를 견제해야 한다.
 - ▶ 이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한 마케팅보다는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2020년에는 가치 사슬에 자사의 가치를 접목하는 역량이야말로 성장과 침체를 판가름할 것이다.
 - ▶ 5G는 증강현실/가상현실 경험의 대중화를 촉진하고, 광고의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 마케팅 담당자들은 멀티 플랫폼(모바일, 데스크톱) 및 화면(스마트 안경, VR 스크린)에서 어떤 방식으로 마케팅 활동을 펼칠지 고민해야 한다.
-

Ⅱ 천연 융복합 소재 트렌드

- ECO융합섬유연구센터
1. 2019-20 천연 융복합 소재트렌드
 - 1.1. 2019-20 소재기획 주요 아이디어
 - 1.2. 2019-20 천연 융복합 소재
트렌드



ECO융합섬유연구원

1 2019·20 천연 융복합 소재 트렌드

1.1 2019·20 소재기획 주요 아이디어

(1) 자연의 영감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자연주의 트렌드는 신비주의에 대한 늘어나는 관심을 자세히 살핀다. 텍스타일과 소재는 감각적이고 화려하며 데카당트한 분위기를 추구하고, 자연에서 발견되는 경이로운 컬러와 조각적인 형태 그리고 부패 속에 담긴 놀라운 아름다움에 가치를 둔다. 로맨틱 민속 테마에서 영감을 얻은 원단은 화려하고 장식적인 디자인으로 나타난다.

▶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구조: 필리그리 레이스와 뒤엀킨 텍스처의 오픈워크 직조는 자연에 뿌리를 두고, 목직인 트위드는 원사 트위드, 유기적인 자카드 및 카무플라주 패턴으로 이끼와 같은 패턴으로 완성된다.

▶ 숲속의 영감이 담긴 우븐 패턴 및 텍스처: 꽃과 식물, 나방으로부터 태피스트리 자카드의 영감을 얻고, 브러시드 원사, 깃털 또는 벨벳 원사, 비즈 및 자수를 곁들인다. 자연스런 플리츠와 수축된 직조처리는 마치 버섯 모양을 연상시킨다.

▶ 변화하는 색상과 차분한 광택으로 흥미로운 효과 연출: 옹브레 자카드, 홀로그램 코팅, 반사 프린트, 스페이스 다이 원사로 컬러 태피터, 스포티 방수 나일론을 업데이팅한다.

▶ 주요 영감으로 자리하는 기후: 로맨틱한 직조는 신비로운 풍경에서 영감을 얻고, 메탈릭 자카드, 플리츠, 마틀라세 원단 및 장식은 극단적인 기후를 반영해 마치얼어 붙고 금가거나, 결정체와 같은 효과를 제공한다.

(2) 세련된 지속가능성

지속가능성은 의미있게 보낸 시간과 느낌의 철학에 가치를 둔다. 원단과 소재는 완성도가 뛰어나며, 제작 과정이 완제품 만큼이나 중요하다. 코어 베이식은 종종 빈티지한 클래식 룩으로 강조하고, 아카이브 체크, 스트라이프, 트위드는 시대를 초월한 매력을 제공한다. 해진 표면과 색바랜 꽃은 소중한 느낌을 전하고, 원단은 창의적인 수선처리

로 새롭게 재탄생한다

- ▶ 지속가능한 섬유와 원사 활용: 천연 성분, 지속가능성, 재활용 섬유는 친환경 염료 및 마감처리와 함께 지속가능한 원단을 제작한다.
- ▶ 뛰어난 촉감으로 일상의 럭셔리 제공: 피부에 부드럽게 닿는 가벼운 소재로 럭셔리한 감각을 제공하고, 포근한 브러시드 모직과 밀링 처리된 모직, 부드러운 플러시 및 벨벳 같은 소재를 사용한다. 직조는 거친 실크와 리넨으로 질감을 더하며, 간절기에 적합한 촉감 효과를 제공한다.
- ▶ '불완전 속의 완벽'이 우리나라 직조: 부편 텍스처, 무늬가 새겨진 자카드, 짜깁기한 듯한 도비 패턴으로 새로운 미적 감각을 표현한다.
- ▶ 빈티지 패턴과 구조로 정통 공예 추구: 클래식 스트라이프, 체크, 트위드는 시대를 초월하는 매력을 제공하고, 따뜻하고 강렬한 색상으로 업데이트되며, 은은하고 참신한 원사 업데이트로 더욱 촉감적으로 변신한다.

(3) 경쾌한 혁신

파격의 미학은 상상력이 넘치거나 때로는 급진적인 디자인으로 규정되며, 국제적으로 불안한 시대에 재치와 유쾌한 파격으로 대응한다. 텍스타일 분야에서는 스포츠웨어 품의 컬러와 텍스처에 하이패션의 화려한 감각이 접목되고, 반소비주의와 지속가능성이 핵심 테마로 자리하면서 알뜰한 맞춤 제작, 생분해 가능한 트리밍, 패치워크 직조, 업사이클된 천연/합성사 등이 모습을 보인다.

- ▶ 자유로운 형태의 패턴과 구조로 경쾌한 디자인 완성: 카무플라주 패턴은 더욱 구불구불해지고, 혁신적인 자유 형태의 우븐 구조는 신체에 맞춰 조절된다.
- ▶ 더욱 경쾌해진 공예 스타일: 전통 컬러 우븐과 패치워크에는 전 세계의 다양한 패턴과 텍스처가 어우러진다. 강렬한 태피스트리 자카드에는 프린지, 터프팅, 자수를 활용해 촉감이 한껏 살아난다.
- ▶ 재활용으로 탄생한 원단: 알뜰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해 재활용한 섬유와 원사로 새로운 트위드 룩을 완성한다.
- ▶ 스포츠와 패션의 만남: 스포츠와 패션의 영향이 하나로 접목되고, 경쾌한 감각으로 기존의 취향에 도전하는 추세에 스포티한 화려함이 새로운 화제로 떠오른다. 자카드와 마틀라세 원단은 친환경 장식, 글리터, 세퀸, 도금으로 화려하게 변신한다.

1.2 2019·20 천연 융복합 소재 트렌드

(1) 우븐 디렉션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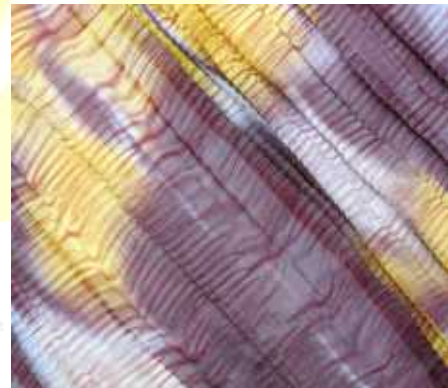
■ 오가닉 텍스처어

이끼류와 나무껍질을 연상시키는 텍스처가 흥미로운 원사 직조, 텍스처 가죽 및 스웨이드에 영향을 미친다. 폭신하거나 펠트 처리된 선명한 원사 자카드와 데보레, 회화적이거나 플록 처리된 프린트, 유기적인 구조의 가벼운 셔츠 소재로 마치 '자라는 듯'한 표면을 완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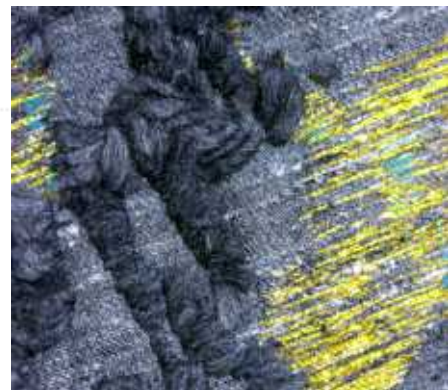
■ 섬세한 플리츠

정교한 자연의 형태가 섬세하고 조각적인 텍스타일에 영감을 준다. 포추니 스타일의 매끄러운 스티치 플리츠는 크레이프 원사를 사용해 은은한 볼륨감을 더하고, 수축 효과 또는 열처리 엠보싱으로 세심하게 구겨진 효과를 완성한다. 섬세하게 얼룩진 컬러 또는 셔닐 원사를 사용해 보다 부드럽게 구김간 효과를 연출한다.



■ 풍성한 플러시

촉촉한 플러시 원단으로 촉감적이고 감각적인 텍스처를 제공한다. 요란한 텍스처 트위드 원단은 다양한 깃털, 슈레드, 벨벳 및 반짝이는 실을 활용해, 따뜻하고 고급스런 카무플라주 효과를 제공하는 화려한 인조퍼로 몸을 감싸준다.



■ 부드러운 트위드

실크 또는 리넨의 거친 특성을 부드러운 울과 혼합하는 등 간절기 트위드는 부드럽고 거친 요소를 한데 뒤섞는다. 라피아 테이프 또는 랩 원사로 투박한 바스켓 직조에 너비 특성을 더하고, 채소와 과일을 연상시키는 색상으로 포근한 룩을 완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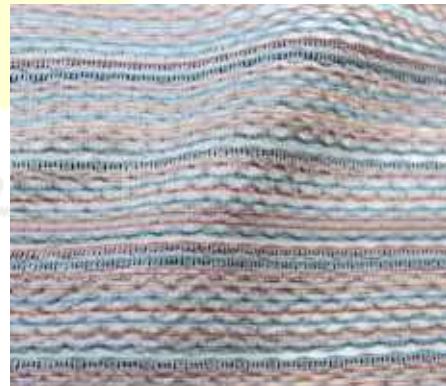
■ 매력적인 투박한 트위드

천연사와 합성사가 혼합된 트위드는 투박함과 고급스러움 사이의 매력적인 하이브리드 룩을 완성한다. 울, 캐시미어, 모헤어는 실크 노일, 셔닐, 리넨 슬러브사, 갈기갈기 찢어진 실크와 광택 테이프 원사로 데카당스한 룩을 완성한다.



■ 부드러운 캔들위크

부드러운 캔들위크 텍스처로 클래식 트위드를 대신하는 포근한 옵션을 제공하고, 레트로 친츠가구 원단은 물론 세미 평직의 벨루어, 골이 가는 코듀로이 및 보풀진 구조를 활용한다. 이 소재는 익숙한 매력 덕분에 일상복으로 활용하기에 제격이다. 터프팅 원사와 갈기갈기 찢어진 멀티 레이어 프린트로 매끄러운 자카드를 보다 화려한 방향으로 이끈다.



■ 실용적인 조직감

튼튼한 트윌과 개버딘, 골이 가는 코듀로이, 가볍게 밀링 가공된 플란넬과 멜톤이 가을 색조로 풍성하게 물든다. 컬러는 스트라이프, 컬러블로킹, 양면 효과로 조화로운 배색으로 물들고, 리넨, 면, 울혼방으로 구성된 부드럽거나 거친 크레이프 원사를 아우른다.



■ 참신한 구조의 인디고

별자리와 물결이 인디고 원단에 신비로운 매력을 붙여넣는다. 울과 코튼 트위드는 참신한 구조와 원사를 탐구하고, 팬시한 삼브레이 셔츠와 데님에는 물결 패턴의 이카트 효과, 프린트 원사, 추상적 자카드, 보로 수선 효과, 선명한 대비를 이루는 워싱 효과가 담겨져 있다.



■ 세련된 구조

장인 공예는 아름답고 세련된 홈스펀 텍스타일에 영감을 제공한다. 클래식 울 그리드 체크에는 필리그리 자카드 또는 레이스 아플리케를 더하고, 셔츠에는 섬세한 터프팅 스트라이프가 담겨진다. 직조는 뉴트럴 색상의 크로셰 또는 바스켓직조 같은 구조로 완성된다.



■ 디지털 터치

사토리얼 셔츠, 팬시 드레스, 수트 소재에 파격적인 글리치 픽셀 패턴을 사용한다. 하운즈투스 체크와 핀스트라이프가 들어간 수트와 자켓 원단은 이중직으로 변화를 주고, 셔츠 소재에는 시각적인 대비 모티브를 사용한다. 고급스런 실크는 디지털 자카드와 자수로 업데이트된다.



■ 추상적인 어반

어반 감각과 여성스런 스타일이 조화를 이룬 섬세한 소재. 가볍고 실크 같은 자카드에는 추상적인 패턴의 레이스와 입체적인 스트라이프가 한데 어러지고, 마틀라세 직조와 엠보싱 가죽은 건축적인 인상을 풍긴다. 텍스처 스트라이프 셔츠는 레이저 컷과 정밀한 데보레 오픈워크를 통해 한층 모던해진다.



■ 포근한 촉감

고급스런 텍스타일로 마치 폭신한 가구 원단, 러그, 부드러운 블랭킷을 떠올리는 포근한 촉감을 제공한다. 강렬한 색상 혼합과 대담한 그래픽 패턴은 곱슬곱슬한 브러시드 마감 또는 로프티 조방사 및 부클레트 원사로 한층 차분해진다. 스트라이프, 체크, 블록 모티브로 입체적인 대비감을 더해준다.



■ 레트로 클래식

셔츠, 드레스, 자켓 소재는 스마트 레트로 스타일로 새롭게 재구성되고, 세련된 컬러와 시각적인 기하학 패턴, 블로킹 스트라이프가 어우러진다. 매끄러운 트윌, 뽀뽀한 면, 섬세한 소모사 자켓 소재로 믹스매치 세트에 시대를 초월하는 유연한 룩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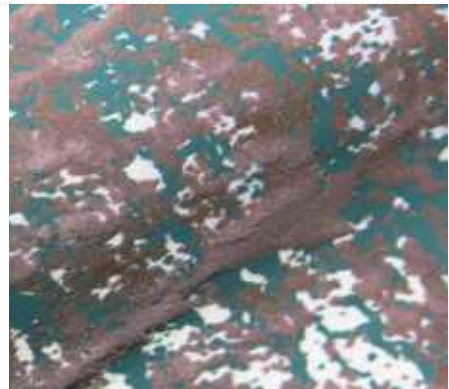
■ 로맨틱 빈티지 실크

빈티지 실크 스카프와 가운이 플라워, 플라드 프린트 및 자카드에 영감을 주고, 종종 메탈릭 액센트를 곁들이고, 컬러 경사 실크로 흐릿한 효과를 연출한다. 필쿠페 프린지로 효과를 더욱 살려준다.



■ 내추럴 카무플라주

카무플라주는 자연에 뿌리를 둔 여성스런 스타일로 진화를 거듭한다. 신비로운 숲속 잎새는 금간 효과와 이끼같은 플록 라인, 잔잔한 비즈 액센트 또는 불가사의한 회화적인 효과로 마치 질감이 살아있는 덩불같은 효과를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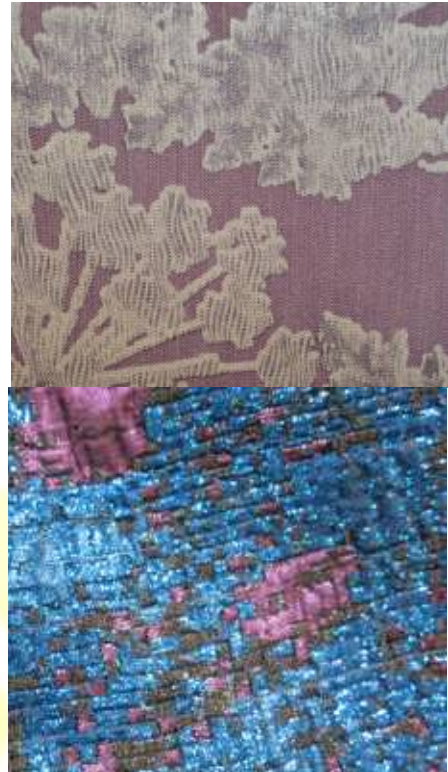
■ 우아한 바랜 플라워

단아하고 수수한 우아함이 이 부두아르 스타일 플라워를 통해 나타난다. 매끄러운 것

털 이불과 핸드페인트 벽지, 부드럽게 색바랜 빈티지 플라워는 다마스크 자카드, 컬러 경사 실크, 프린트 코튼, 데보레 실크, 벨벳 같은 플러시 소재의 아카이브 참조로 자리한다.

■ 친환경 글리터

풍부하고 과시적인 컬러, 대담한 패턴과 반짝이는 메탈릭을 사용한 화려하고 요란한 텍스타일로 기존의 취향에 도전한다. 친환경 틴셀 유사 원사, 세컨 장식, 럭셔리한 퀼트, 터프팅으로 자카드, 마틀라세, 세미 시어 경량 원단의 화려함을 최대한 살려준다.



(2) 니트 디렉션 13

■ 은은한 마모효과

유연한 반투명 원단은 은은한 마모 효과를 더한 애니멀, 카무플라주에서 정교한 플로럴에 이르는 패턴으로 등장한다. 면/폴리, 면/리넨, 코튼, 리오셀/폴리/텐셀, 폴리/비스코스 원사로 데보레, 플라메, 플러시, 컷 부편사 자카드는 무광 및 광택 마감으로 처리되고, 메탈릭 프린트로 포멀웨어와 어케이전 웨어에 화려함을 추가한다



■ 워싱효과

거친 촉감, 햇빛에 바랜 컬러, 마모된 마감이 특히 여름시즌에 계속해서 제시되며, 자연스러운 텍스처는 꾸준히 진화를 거듭한다. 리넨/폴리, 리넨/폴리/폴리아미드, 코튼, 코튼/아크릴 플라메 원사를 활용하고, 스페이스다이 골지, 드롭 니들 스티치, 세브런, 플러시, 루프백, 싱글 및 인터록 저지로 바랜효과를 표현한다.



■ 장식적인 표면효과

수축되고 루싱처리된 구조, 불규칙한 플리츠와 입체적인 효과는 여성스런 파티 및 어케이전 패션에 적합하고, 무광 코튼은 캐주얼한 일상복에 사용된다. 모달/폴리에스테르/폴리아미드, 면, 면/폴리에스테르 혼방으로 플리츠, 골지, 블리스터 효과의 자카드

로써 캐주얼한 주름효과를 표현한다.

■ 테크 업그레이드

톡톡 튀는 원사가 스포티한 원단에 핵심으로 자리한다. 광택 고무 코팅, 밀한 스폰지 구조 등의 촉감적인 마감을 사용한다. 폴리에스테르, 폴리아미드, 코튼, 재활용 울/재활용 폴리에스테르/리오셀, 재활용 텐셀/재활용 폴리에스테르, 엘라스틴 원사로, 양면, 본딩 가공으로 제시된다.

■ 천연혼방 메쉬

메시 디테일이 2016년과 2017년 사이 62.8% 증가하면서, 메시 소재가 스포티 및 란제리 풍의 패션 아이템에서 발전을 거듭한다. 폴리/면 등의 천연혼방 스트라이프, 그리드, 컨템포러리 레이스 효과로 색다른 반전을 선사한다.

■ 스포티 에스닉

에스닉 패턴이 디지털 글리치 효과로 업데이트된다. 스포티하고 조밀한 자카드는 대형 및 소형 크기, 시선을 사로잡는 색상으로 구성된다. 코튼, 아크릴 혼방에 약간의 엘라스틴을 추가해 은은한 신축성 제공하며, 다채로운 자카드, 텍스처 골지 니트로 구성된다.

■ 산뜻한 체크

체크는 계속해서 다양한 버전 및 패턴 효과로 나타나며 브라이트 컬러로 캐주얼한 일상복을 산뜻하게 해준다. 면/폴리, 폴리아미드, 엘라스틴 혼방으로 킁킁, 글렌과 마드라스 체크 자카드는 무광으로 마감되고, 프린트 싱글 저지는 예쁜 펄빛으로 처리된다.



■ 올오버 스트라이프

스트라이프는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7% 증가하며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다양한 컬러 콤비, 매끄러운 스포티 및 촉감적이고 거친 터치로 마감된다. 폴리에스테르/비스코스, 폴리에스테르, 비스코스/폴리, 코튼, 말드, 스페이스 다이 효과로, 플러시, 골지, 텍 스티치, 싱글 및 인터록 저지 모두에 활용된다.



■ 은은한 레트로

소형 기하학은 대담한 형태, 은은한 광택으로 처리되어 보다 포멀한 효과 및 사토리얼 효과로 제공된다. 패턴을 통해 동적인 감각을 선사하며, 역동적인 매력을 추가한다. 리넨/면에 은은한 신축성을 더해주는 엘라스틴 추가하고, 무광 및 은은한 광택 가공의 자카드로 구현한다.



■ 클래식 스트라이프

클래식 노트컬 스트라이프는 질감 있는 효과로 새로워진다. 코드, 데보레, 수축된 스티치 등의 입체적인 효과에 스트라이프를 접목해 촉감을 추가한다. 폴리/면, 비스코스/폴리 리오셀/면, 면 원사에 스페이스다이, 수축가공을 통한 블리스터 효과 등으로 표면감을 살려준다.



■ 대형 플라워

열대 잎 및 대형 꽃으로 대담한 플로럴 패턴을 구성하고, 입체적인 표면 텍스처 및 반짝이는 원사로 이 클래식 룩을 새롭게 한다. 비스코스/리넨/폴리아미드, 아크릴/폴리에스테르, 코튼/폴리에스테르, 약간의 엘라스틴으로 신축성 추가하고, 오토망이나 골지 자카드로 표면감을 더한다.



■ 강화되는 새틴광택

광택 및 새틴 마감이 계속해서 런웨이에 목격되고, 스포티 애슬레저 아이템이 파티웨어 아이템과 나란히 자리한다. 새틴 아이템은 2016년과 2017년 사이 35% 증가했다. 텐셀, 마이크로 모달 등으로 촉감과 광택감을 더한다. 골지, 인터록, 치밀한 자카드로 유연하고 조밀한 구조를 지닌다.

■ 전면 메탈릭

파티웨어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면서, 브라이트 메탈릭 원사가 핵심으로 떠오른다. 면/폴리아미드 혼방에 메탈릭 폴리, 은은한 신축성을 더해주는 엘라스틴을 활용하거나 포일 코팅과 프린트를 활용한다. 매끄럽고 금간 효과의 골지 및 플리츠로 광택 효과를 강조한다.



ECO융합섬유

(3) 아웃도어 스포츠 디렉션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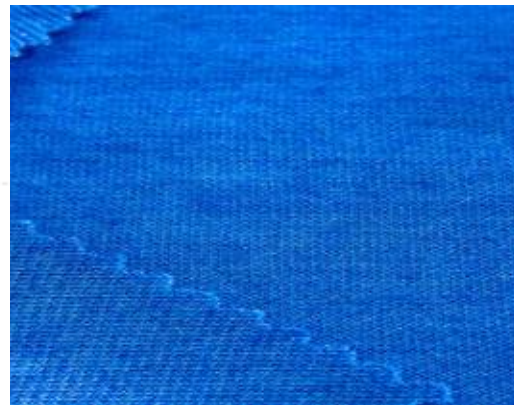
■ 지속가능성, 말드

휴식이 그 자체로 하나의 활동으로 자리할 전망으로, 편안함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슬라운지웨어 베이직, 심지어는 홈웨어 또한 매우 부드러운 말드 저지와 플리스, 친환경 텐셀, 쿠프로 혼방으로 업그레이드된다. 여러가지 색상이 어우러진 밝은 그레이 말드는 차분함과 회복의 느낌을 전한다.



■ 액티브 울

니트 텍스처와 구조는 활동적인 베이스 레이어에 눈에 띄게 사용된다. 이음새 없는 구조와 환편 니트로 뚜렷한 형태와 스포티한 컬러블로킹을 완성하고, 색다른 혼방 원단으로 메리노를 포함한 천연 기능성 울 원단에 추가의 신축성과 내구성을 더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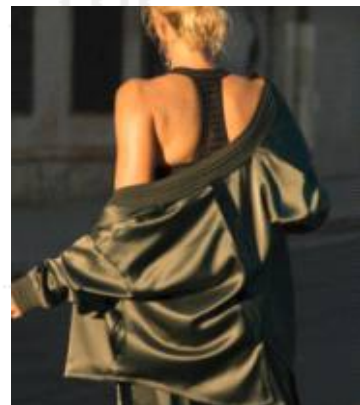
■ 펠트 라이크

기능성 울은 테일러드 및 사토리얼 감각으로 편안함과 기능성, 우아함을 선사한다. 그 밖에도 천연 방풍 및 향균 기능과 함께 펠트 처리된 외관이 특징을 이룬다. 아우터웨어 품목의 경우, 울에 이중 본디드 막을 접목해 방수 효과를 강화한다.



■ 스포츠 실크

실크와 새틴을 포함해 웰빙과 평온함을 촉진하는 고급 원단이 우아한 아웃도어/스포츠웨어 트렌드에 영감을 불어넣는다. 세련된 미드톤과 광택 마감처리된 소재는 움직임의 선을 강조한다. 신축성 베이스 레이어에는 은은하게 분산된 광택으로 여성의 라인을 강조한다.



■ 요철감 니트

아웃도어/스포츠 니트 원단은 한결 고급스러워지며 장식적인 구조로 완성된다. 면과 폴리에스테르 베이스 레이어에는 피부를 시원하게 유지해주는 오므라든 경량 구조와 함께 블리스터 효과가 중요하다. 블리스터 효과는 이음새없이 짜여지는 풋웨어 기술의 발전 덕분에 스니커즈에도 활용된다.



■ 친환경 스포츠 가죽

서브컬처 스타일 트라이브들이 피트니스 패션을 더욱 터프한 감각으로 소화함에 따라 반항적인 아나키 룩이 떠오른다. '非 스포츠' 원단이 아웃도어/스포츠웨어에 사용되고, 오래되거나 빈티지한 가죽이 핵심이며, 친환경 옵션으로는 비건가죽을 사용하기도 한다. 한편, 신축성 폴리우레탄은 힙을 받쳐주는 효과가 뛰어나다.



■ 벨벳, 벨루어

벨벳과 벨루어는 더욱 화려해지고, 글래머 테마와 드레스업 패션을 계속해서 이어나간다. 코튼, 비스코스 블렌즈의 럭셔리 크러시드 벨벳 소재의 조거팬츠와 같은 스포츠 캐주얼 스타일을 비롯해 반전 스타일이 핵심으로 자리한다. 가벼운 신축성 벨루어 또한 슬라운지웨어와 슬라운제리에 사용된다.



■ 테크 데님

애슬레저 트렌드가 떠오름에 따라, 깔끔한 인디고 마감의 기능성 데님이 아웃도어/스포츠 분야에서 더욱 일반화되고 있지만, 데님 원단은 디스트레스 효과를 더한 올풀린 밑단과 색바랜 마감처리를 통해 빈티지 감각이 더해진다. 한편, 자켓과 청바지는 새롭게 리폼되고, 새로운 신축성 데님은 가벼운 무게와 고기능성을 선사한다.



■ 자연 모방

퍼포먼스, 자연, 새로운 정신세계가 만나 아웃도어 트렌드를 신비롭고 자연적인 방향으로 이끈다. 이끼와 나무 껍질이 카무플라주 프린트에 영감을 주고, 기능성 우븐과 가죽은 무성하게 자라 이끼가 낀 듯한 모습이다. 세심하고 사실적인 암석과 나무 프린트로 이 테마의 자연적인 느낌을 더욱 살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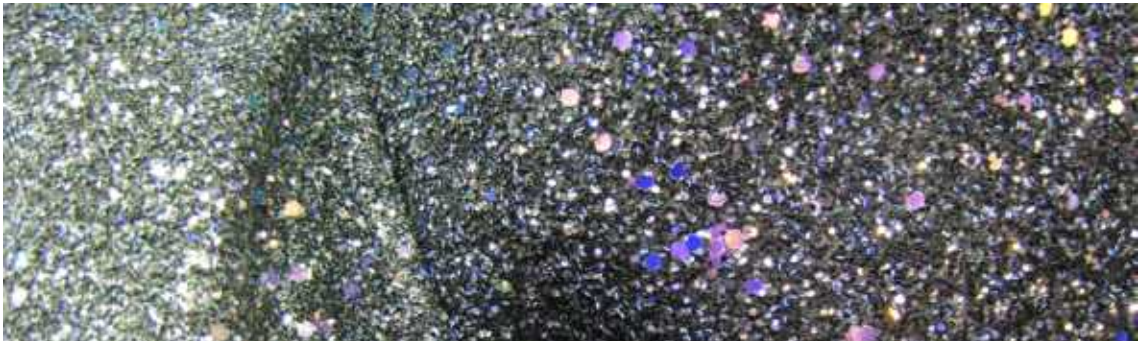
■ 인조 퍼

화려한 플러시 원단으로 리메이크된 클래식 스포츠웨어와 함께 드레스업 패션이 다시 돌아온다. 컬러풀하고 복슬복슬한 플리스, 인조퍼, 플러시 니트를 아웃도어/스포츠웨어 원단과 함께 사용해 애슬레지 웨어에 경쾌한 매력을 더한다.



■ 글리터

아웃도어/스포츠웨어와 이브닝웨어가 만난 럭셔리한 장식 테마. 아웃도어/스포츠웨어와 스니커즈는 생분해 성분의 멀티컬러 글리터와 홀로그램 파이에트로 화려하게 빛난다. 그 외 옵션으로는 반짝이는 루렉스를 사용해본다





-
- ▶ 결함이 살아 있는 은은한 홈스펀 감각으로 편안한 분위기의 지속가능한 원단을 선택한다. 천연 섬유와 원사가 핵심이며, 주름지고 길들은 듯한 느낌의 러스틱한 해치 직조와 무염 또는 무워싱 원단 또한 나란히 등장한다.
 - ▶ 은은하고 여성스런 빈티지 분위기는 여성복에 영감을 불어넣는다. 색바랜 노스텔직 플라워와 섬세한 레이스 뿐 아니라 유연한 실크 원단과 윤기 나는 새틴 또한 중요하다. 비침효과를 활용하고, 화려한 대형 필쿠페도 살짝 곁들인다.
 - ▶ 헤리티지 원단은 점점 더 깔끔해지고, 특히나 의외의 원단과 코팅이 텍스처 섬유와 나란히 사용되고 있는 포멀 남성복 분야에서 그 추세가 뚜렷하다.
 - ▶ 애슬레저가 계속해서 패션 트렌드에 영향을 미치면서, 스포티한 구조가 여전히 중요하게 자리한다. 메시는 정교한 오픈워크 패턴으로 새로워지고, 양면 및 접합 구조는 브라이트 원색의 고무같은 외관으로 가공된다.
 - ▶ 화려한 글래머 감각과 자기 표현이 핵심 테마로 자리해 고급스런 마감과 장식으로 완성되고, 착용감이 뛰어난 저지 니트와 울 혼방을 함께 사용한다. 고급 퍼포먼스 품목의 경우, 텍스타일과 '내장된 전자기기'로 건강을 도모하고, 이는 신체와 환경에 맞춰 작용한다.
-



ECO융합섬유연구원